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발표회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 _ 이봉석 박사(감신대)

#발표1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_ 이은아 박사(이화여대)

#발표2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_ 성신형 박사(숭실대)

#발표3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_ 송진순 박사(이화여대)

#발표4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_ 김혜령 박사(이화여대)

#전체토론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며”

_ 최현종 박사(서울신대)

_ 이숙진 박사(이화여대)

2019.06.15(SAT) AM 10:00

낙원상가 5층 청어람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주최: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단

주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977)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발표회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 _ 이봉석 박사(감신대)

#발표1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_ 이은아 박사(이화여대)

#발표2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_ 성신형 박사(송실대)

#발표3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_ 송진순 박사(이화여대)

#발표4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_ 김혜령 박사(이화여대)

#전체토론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며”

_ 최현종 박사(서울신대)

_ 이숙진 박사(이화여대)

2019.06.15(SAT) AM 10:00

낙원상가 5층 청어람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주최: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단

주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3068977)

발행일 | 2019년 6월 15일(토)

발행인 | 김혜령, 정병오, 고재길

편집인 | 윤신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자료집은 내지 흑백으로 출력되었습니다.

통계자료를 컬러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 → ‘자료실’ → ‘자료집’ 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길 권합니다.

■ 감사의 말씀

지난 2년간 함께 모여 연구를 진행했던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설문과 통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연구진들 모두가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배우는 일을 즐기며, 나아가 학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창조의 기쁨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 혐오가 심각하다고, 그 중에서도 교회가 혐오 현상의 중심에 있다고 다들 걱정을 시작하던 시기에 우리 연구단도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혐오와 도덕, 혐오와 종교의 관계를 되짚어가는 연구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대부분인 연구단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회 내부의 혐오 현상을 직시하고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연구 결과물은 그러한 노력의 1차 결과물입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 주저 없이 질문해 주시고, 함께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면을 빌려 지난 2년간 연구단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규모 시민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에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연구단이었지만, 이 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 마경희 연구위원님(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숙진 박사님(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그리고 설문 실시와 기초 분석에 큰 도움을 주신 (주)한국리서치 성현정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통계분석과 검정에 도움을 주신 정혜윤·김미성 연구원(이화여대 통계학과 석사과정)과 조현선 선생님(이화여대 통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김수영 선생님(송실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그리고 연구단의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굵은일을 도맡아 해 주신 박상호 연구원(감신대 신학과 석사과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의 발표가 잘 발표될 수 있도록 행사 전반을 주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병오·배종석·정현구 공동대표님과 기독교윤리연구소 소장 고재길 교수님, 그리고 모든 활동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윤신일 간사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최현종 교수님(서울신학대학교)와 이숙진 박사님(이화여대)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재단의 재원이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한국 사회의 모든 시민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잊지 않고 전합니다.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단

순서 및 목차

사회 : 이봉석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연구 브리핑: 연구단 구성 및 설문조사 개요 소개

김혜령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9p

발표 1: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이은아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21p

발표 2: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성신형 박사 숭실대학교 37p

발표 3: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49p

발표 4: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김혜령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59p

전체토론: “합당한 자성과 책임을 모색하며”

최현중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이숙진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참가자 질의·응답

연구진 소개 84p

연구 브리핑.

연구단 구성 및

설문조사 개요 소개

김혜령 박사

(이화여대)

1. 연구단의 구성



1. 연구단의 구성

가. 구성 및 연구 과정

-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 (2년차)
- 연구과제명 : 한국적 혐오현상의 도덕적 계보학 연구 -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2018년 (1년 차) 연구 중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설문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및 문항 구성 및 전문가 피드백 ◆ 시민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양적 조사)
2019년 (2년 차) 연구 중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년도 연구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한국적 혐오현상들에 관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개신교인들의 관습적 도덕과의 관련성을 개인 및 소규모집단 인터뷰를 통해 조사(질적 조사) ◆ 한국적 혐오현상의 해소를 위해 1~2차 사회학적 연구 데이터에 적합한 기독교 윤리학적 대안을 교회교육과 신학교육 전반에 제시

1. 연구단의 구성

나.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박사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계
참여인력	1	3	1	4	9

전공별				
연구책임자 김혜령 박사	공동연구원 1 성신형 박사	공동연구원 2 이은아 박사	공동연구원 3 이봉석 박사	박사급 연구원 송진순 박사
기독교윤리 여성신학	기독교윤리 소수자분야 타자성 연구	사회학 및 여성학 이주여성 연구 질적연구 방법론	기독교윤리 경제노동 분야	신약성서학 혐오 관련 연구

2.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개

2.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개

가. 조사 개요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표집틀	2018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조사 방법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 60대 이상 : 대면면접조사
표집 방법	2018년 1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 일시	2018년 12월 26일 ~ 2019년 1월 14일
표본 크기	총 1,000명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샘플링 설정 특이사항 : 통계학적 적절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 인구 구성에 대비하여 개신교 응답자를 오버샘플링(Oversampling, 전체 1000명 중 327명) 하였음.

2.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개

나. 설문 연구 목적

- ① 한국사회에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다양한 혐오 대상들 중 총 4개의 카테고리(여성, 난민, 노인, 성소수자)를 사전 연구를 통해 선정하여, 혐오대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혐오 표현에 대한 심각성 인식, 혐오를 줄이는 대안에 대한 동의 정도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 ② 설문 응답자의 도덕적 특성을 총 5개의 카테고리(덕윤리, 사회윤리, 생명윤리, 경제윤리, 젠더윤리)로 나뉘어진 문항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혐오 인식과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 ③ 설문 응답자의 종교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도덕의식과 종교 간의 상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혐오현상에 대해 종교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단의 연구분야(기독교윤리)를 고려하여, 개신교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혐오 현상의 주된 생산자로 언론을 통해 주목되고 있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사회, 경제, 도덕적 특성을 파악한다.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2. “한국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개

다. 설문 문항 구성

I.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III. 도덕 관련 문항	
문항수	8개	문항수	5개
II. 혐오관련 문항		총 5개의 윤리 카테고리 분류하여 질문 *카테고리마다 하위문항 7-9개 구성	
문항수	5개	덕윤리(개인윤리)	
총 4개 혐오 대상 카테고리로 분류된 질문	여성/난민/노인/성소수자	사회윤리	
카테고리마다 질문의 3개 하위 단위로 분류 하여 질문	대상에 대한 일반적 의견	생명윤리	
*카테고리마다 하위문항 12-14개로 구성	대상 혐오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정도	경제윤리	
	혐오를 줄이는 대안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젠더윤리	
		IV. 종교관련 문항	
		문항수	10개
		개신교 관련 하위 문항 추가	7개
		V.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수	7개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3. 기본 통계 자료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3. 기본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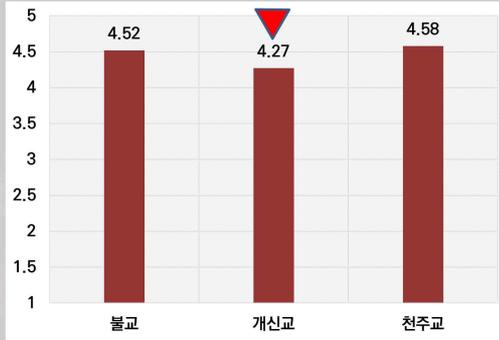
가. 종교별 호감도 – 타종교인이 보는 종교 호감도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3. 기본 통계 자료

나. 종교별 호감도 –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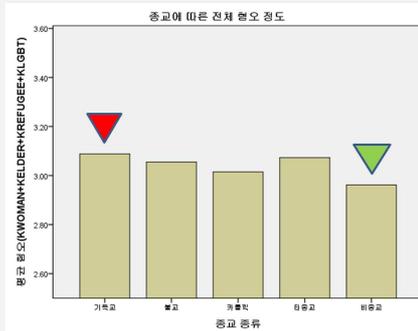


다. 종교에 따른 4대 혐오 총합 비교 간략 통계

기술통계								
혐오적 사고 전체 합산 (여성+노인+난민+성소수자)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개신교	327	3.0884	0.48408	0.02677	3.0357	3.1410	1.54	4.69
불교	139	3.0551	0.45203	0.03834	2.9793	3.1309	1.80	4.00
카톨릭	92	3.0147	0.45067	0.04699	2.9213	3.1080	1.84	4.31
기타 타종교	18	3.0729	0.38899	0.09168	2.8795	3.2664	2.36	3.74
종교없음(무종교)	424	2.9620	0.51435	0.02498	2.9129	3.0111	1.20	4.65
전체	1000	3.0231	0.49088	0.01552	2.9926	3.0536	1.20	4.69

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172	4	0.793	3.321	0.010
집단-내	237.550	995	0.239		
전체	240.722	999			

다중비교							
(I) SQ4_3 종교 종류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이(-)			하한	상한	
Bonferroni	개신교	불교	0.03325	0.04947	1.000	-0.1059	0.1724
		카톨릭	0.07371	0.05766	1.000	-0.0885	0.2359
		기타 종교	0.01546	0.11829	1.000	-0.3173	0.3483
		비종교	.12641*	0.03596	0.005	0.0252	0.2276



여성, 노인, 난민,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4대 혐오에서 요인 분석 후 그룹핑한 '혐오적 사고' 요인을 총합하여, 종교별로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상 개신교가 가장 높은 혐오적 사고를 보였으나, 사후분석의 결과 개신교의 혐오적 사고는 가장 낮은 비종교(종교없음) 집단과의 격차만 통계상 인정될 뿐, 불교나 카톨릭, 기타 종교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에 종교인들 중 개신교를 지목하여 혐오집단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가. 개념 구분 : 증오와 혐오

개념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미움 현상이 ‘싫어함’이나 ‘역겨움’이라는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증오보다 더 큰 개념으로 사용되는 ‘혐오’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나. 혐오 개념 정의

개인적인 미움의 감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고착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움의 감정.

‘기득권층’이나 ‘다수’에 대한 미움은 그들에 의해 상처받는 취약자들이 품는 ‘분개’하는 미움이거나, 혹은 그들이 받는 부당함에 공감하며 함께 분개하는 ‘정의감’에서 나온 감정이기 때문에 개념상 혐오라고 부를 수 없다.

[참고] 미러링 Mirroring
소수자들을 향해 일상적으로 내뱉어지며 상처를 주어왔던 혐오발언들(excitabile speech, ‘모욕발언’이라고도 번역함)의 단어나 형식을 수정·복사하여 원천적 혐오발언들의 발화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미움 표현을 ‘저항발언’(counter-speech)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미러링을 통한 저항발언이 - 형식상은 미움의 표현을 띄고 있다고 해도 - 원천적 혐오발언들 아래 은폐되어 있던 소수자들에게 대한 차별 구조를 교란하고 해체하여 전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전략적인 언어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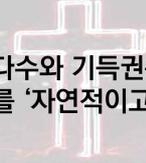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다. 도덕이 된 혐오: 혐오가 아니라 선도(善導)이고 사랑!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질적인 위험 인자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익숙해진(너스바움, 182) 인류가 위생과 의료, 과학이 발전한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집단 도덕 감정으로서 혐오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다수와 기득권층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권리를 차별하는 혐오를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그래서 합당한 증오감정으로서 둔갑시켜 지속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라. 왜 기독교 윤리는 혐오와 결코 동행할 수 없는가?

예수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혐오의 종교 도덕을 완전히 해체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도덕은 차별 받는 자들에 대한 열림과 환대의 도덕, 즉 사랑의 도덕에만 기초함을 선포하였다.

혐오를 그리스도의 도(道)라 철저히 믿고 실천함으로써 사실은 중세 이전으로, 그리고 예수 이전으로 퇴화한 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독단적인 믿음의 성전(聖戰)에 사람이 차별받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한 채. 그리고 그렇게 혐오의 도덕을 작동시키는 방식에 기대어 극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급속히 무너져 가는 교세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혐오의 정치학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다.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전문 첨부 _ 14p

4. 연구단이 정의하는 “혐오” 개념

김혜령 박사(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기독교 윤리 전공)

가. 개념 구분 : 증오와 혐오

다음daum 국어사전에 따르면, ‘증오’란 ‘몹시 미워함’을 뜻하며,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현상들에 대한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재정의 되고는 있으나, 우리말 사전상의 의미로만 볼 때 혐오 개념 속에 ‘싫어함’이라는 감정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상 언어의 쓰임에서 증오나 혐오라는 말에 대한 의미의 구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단어의 영어번역에 있어서도 공히 hate나 hatred 모두 번역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혐오는 ‘역겹다’라는 의미의 disgust나 disgusting이라는 말로 추가하여 번역이 가능한데, 우리말에서 혐오라는 단어에 ‘싫어함’이라는 감정이 추가된 것처럼 disgust나 disgusting로 번역되는 혐오는 주로 hate로 번역되는 증오에 비해 미워함의 감정이 강력한 신체적 거부 반응과 더불어 일어나는 매우 강한 미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혐오와 증오, disgust와 hate의 완전한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며, 언어권마다, 학자들마다, 서로 혼용하거나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혐오에 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펼친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책 『혐오와 수치심』(민음사, 2015)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의 혐오로 번역된 영어 원제의 원 단어는 disgust였던 반면, 한국 상황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진중하게 제기한 법학자 홍성수의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 2018)에서는 주로 일본의 혐한 시위에 등장하는 hate speech를 ‘증오표현’이 아니라 ‘혐오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다. 독일의 카롤린 엠케(Carolin Emcke)의 책 『혐오사회』(다산지식하우스, 2017)에서는 증오와 혐오를 따로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념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미움 현상이 ‘싫어함’이나 ‘역겨움’이라는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증오보다 더 큰 개념으로 사용되는 ‘혐오’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나. 혐오 개념 정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혐오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정의하는 ‘혐오’의 개념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의 감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고착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움의 감정이다. 즉 한 사회의 역사, 문화, 정치, 종교 등의 복합적 요소에 근거하여 ‘차별받는 대상’이 되었던 ‘소수자 개인’이거나 ‘소수자 집단’을 향한 미움이 혐오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다수’에 대한 미움은 그들에 의해 상처받는 취약자들이 품는 ‘분개’하는 미움이거나(너스바움, 191) 혹은 그들이 받는 부당함에 공감하며 함께 분개하는 ‘정의감’에서 나온 감정이기때 개념상 혐오라고 부를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유행하는 ‘개독교 혐오’나 ‘남혐’이라는 말은 언론이나 일상적 언어표현에서 ‘혐오’라는 말의 큰 범위 안에 ‘이슬람 혐오’나 ‘여혐’과 상극을 이루는 혐오의 하나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혐오 개념 분류에 있어서 ‘개독교 혐오’나 ‘남혐’을 혐오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명예나 사회적 신뢰도를 다소 떨어뜨리기는 해도 기독교인들의 존재 자체나 사회적 권리를 부정하거나 차별받게 하지는 않는다. ‘남자를 혐오한다’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발언 역시 - 2018년 11월 이수역 폭행사건과 같은 우발적이고 개별적인 폭력사태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남성 집단에 대한 존재 부정이나 권리 축소를 사회적 차원에서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는 미움이기에 ‘혐오’에 포함하기 매우 어렵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독교’나 ‘남혐’이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집단의 다수 집단이었던 기독교와 남성 집단에 의해 상처받은 약자들의 억울한 마음에서 비롯된 미움이기에 ‘분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분류의 연장선에서 최근 비주류나 소수자 집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러링(mirroring)의 활동은 그 표현 방식의 증오성과 폭력성의 강도가 일반인들의 정서에서 볼 때 때때로 매우 당혹스럽더라도, 이미 존재하여 왔으나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던 원본으로서의 ‘혐오’가 가지는 강력한 차별과 폭력의 수직적 구도를 역전하여 되돌려 줌으로써 원본 혐오의 심각성을 해당 사회의 논쟁적 문제로 단번에 부각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혐오발언』(알렙, 2016)의 저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한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향해 일상적으로 내뿜어지며 상처를 주어왔던 혐오발언들(excitable speech, ‘모욕발언’이라고도 번역함)의 단어나 형식을 수정·복사하여 원천적 혐오발언들의 발화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미움 표현을 ‘저항발언’(counter-speech)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미러링을 통한 저항발언이 - 형식상은 미움의 표현을 띄고 있다고 해도 - 원천적 혐오발언들 아래 은폐되어 있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구조를 교란하고 해체하여 전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전략적인 언어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러링에 대한 버틀러의 변호가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주류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예외적 사건들 모두를 원천적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전략적 전술로 통칭하여 감싼다고는 할 수 없다. 그가 말한 미러링은 원천적 혐오발언이 은폐하는 사회의 차별 구조를 언어적 차원에서 드러내는 수준의 ‘저항발언’에 한정되지, 저항발언에 근원 감정이 되는 ‘분개’를 특정 대상들을 향해 물리적으로 직접 표출하는 폭력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미러링과 저항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버틀러가 적어도 ‘차별을 생산하고 고착시키는 미움’과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보복적 미움’의 도덕적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혐오 개념의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 도덕이 된 혐오 : 혐오가 아니라 선도(善導)이고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미움은 불쾌의 감정이기에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에 상처가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수히 많은 종교들과 지혜자들은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거나 용서할 것을 권하며, 미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가르쳐 왔다.

미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덕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여기는 일상의 도덕률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수자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역시 ‘미움’의 감정이기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일상의 도덕률에서는 오히려 혐오가 정당화되고 강화된다. 혐오는 소수자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미움이기에 선과 사랑을 지향하는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옳지 못하거나 악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혐오로서의 미움은 - 일상의 도덕률에서 흔히 화해와 용서

를 촉구 받는 여타의 미움들과는 다르게 -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의 도움을 받아 찾을 수 있다. 서양의 혐오 연구사가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온 유대인이나 여성, 타 대륙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치중하였던 것과 달리, 이 책에서 너스바움은 진화론적 시각에서 ‘역겨움’이라는 원천적 감정으로서의 혐오감이 위생과 의료, 과학이 전무하였던 시절에 인간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어떻게 순기능을 하여왔는지를 밝히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시절 신체의 배설물, 부패한 음식, 인간과 동물의 사체 등은 그것을 접촉한 사람들과 집단 전체를 때때로 원인모를 질병과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었을 것이다. 이러한 원초적 경험이 오염경로와 예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원시 사회에 쌓이게 되면 위험 인자로 추정되는 일체의 것들과 접촉자체를 우선적으로 피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력하게 펼치는 관습이 한 사회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너스바움은 혐오 속에 담긴 핵심적 관점을 ‘전염’에 대한 공포에서 찾는다.(너스바움, 159) 즉, 인간사회는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 인자들에 대한 ‘역겨움’의 혐오감을 사전에 강력하게 공유하여 전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질적인 위험 인자로부터 인간의 유한한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복잡한 투쟁의 자연적 결과’라 볼 수 있는 혐오감이¹⁾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할 ‘도덕 감정’으로 격상되어 교육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위험한 것이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이 옳지 못한 것으로 그 의미가 강화되며 접촉의 통제가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혐오의 도덕화는 유대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의 비판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하나님과 계약공동체의 사이의 약속이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거룩한 법으로 출발한 율법은 사실 현실에서 공동체의 위생과 안전, 나아가 가족과 민족, 나아가 국가 질서를 지키는 생존의 도덕이자 생활법의 기능을 하였다. 문제는 거룩한 구별의 법으로서의 율법이 위험인자를 가진(혹은 가졌다고 추정되는) 집단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유대 정결법으로 축소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부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를 종교적으로 ‘선’이라거나 ‘옳음’이라는 가치로 정당화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 시대에 이르러 정결법이 피부병,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 제사 음식, 생리하는 여성, 문둥병자(이하 한센병자), 장애인 등을 불가촉 대상으로 취급하며 ‘더러움’과 ‘역겨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 앞에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 인지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질적인 위험 인자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익숙해진(너스바움, 182) 인류가 위생과 의료, 과학이 발전한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집단 도덕 감정으로서 혐오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해야 할 ‘사회’의 실체가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정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나 기득권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지켜지는 사회라는 점이다. 문명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서구 근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이나 유대인, 흑인, 성소수자 그리고 이슬람교인 등에 대한 다수의 미움의 감정이 사회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비합리적인 저항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전염에 저항하는 혐오의 감정은 원시 사회에서 위험 요소로 추정되는 오염물들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실천으로 발전하였는데, 그러한 감정과 실천의 관습이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다수와 기득권층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권리를 차별하는 혐오를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그래서 합당한 증오 감정으로서 둔갑시켜 지속되

1) 너스바움, 226.

고 있다.

본 연구단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소수자의 존재와 권리에 엄청난 위협과 침해를 가하는 차별을 초래하는 혐오감을 품고 또 공공 공간에서 그 혐오를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 소수자의 존재성을 뿌리 깊게 상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뒤집어서 말한다. 자신들의 감정과 표현이 그 형식에서 비록 미움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본질은 잘못된 길로 자신과 사회를 망치거나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선도(善導)이며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혐오가 그들의 알량한 도덕이 된 것이다. “윤리를 운운하며 비난 받는 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즉 윤리적 폭력인 것이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2013, 84)

라. 왜 기독교 윤리는 혐오와 결코 동행할 수 없는가?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정결법 중심의 율법은 위험 인자를 ‘더러움’과 ‘역겨움’, 나아가 ‘부정한 것’으로 인지하게 하여 기피하도록 만드는 혐오 감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 주었던 생존 도덕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약의 전통을 독점하는 집단(남성, 사제, 정치권력 집단)에 의해 율법은 소수자 집단(여성, 이방인, 병자, 장애인 등)을 기독교에서 계속적으로 배제시키는 데에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혐오감과 혐오표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종교 도덕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예수에 의해 혐오를 수단화 하는 종교 도덕은 이미 철저히 해체되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은 유대 공동체가 오랫동안 율법을 방패삼아 역겹거나 부정하다고 취급하며 공동체로부터 축출하거나 차별하였던 이들과의 동행이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유대인라면 접촉이 금지된 한센병자, 창녀(이하 성매매 여성),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거침없이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였다. 유대 공동체는 한센병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그 부모나 그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한센병자에 대한 혐오를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 확신해 왔다. 한센병자에 대한 예수의 치유 사역은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죄 아닌 것을 죄로 둔갑시켜 차별하였던 이들의 혐오의 도덕을 해체시켰다. 남편이 아닌 자와 살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유대인들의 손에서 결국 돌을 놓게 만든 예수의 침묵은 보살펴 주는 이 하나 없는 가난한 여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성매매의 죄를 혐오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가 되는 새 삶으로 부르심으로써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땅에 버려진 사람들의 혼종적 후손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꾸짖으며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때가 왔다고 선언하며 사마리아인을 있는 그대로 새 시대에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는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혐오의 종교 도덕을 완전히 해체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도덕은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열림과 환대의 도덕, 즉 사랑의 도덕에만 기초함을 선포하였다.

오늘날 한국 극우 개신교는 겉으로는 선도와 사랑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선도와 사랑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의 존재 방식과 사회적 권리 등을 부분적으로 혹은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들의 감정과 행위는 결코 혐오가 아닐 수 없다. 이천 여 년 전 예수에 의해 혐오의 정결법이 완전히 해체되고 소수자들에 대한 사랑의 법이 참 도덕의 자리에 온전히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개신교는 오염에 대한 공포에 기생하여 역겨움과 부정함의 감정을 소수자들에게 투영하고, 그들의 존재를 반대하며 권리 투쟁 운동을 방해한다. 개신교, 즉 protestantism이라고 스스로 표방하지만, 혐오를 그리스도의 도(道)라 철저히 믿고 실천함으로써 사실은 중세 이전으로, 그리고 예

수 이전으로 퇴화한 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독단적인 믿음의 성전(聖戰)에 사람이 차별받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목살한 채. 그리고 그렇게 혐오의 도덕을 작동시키는 방식에 기대어 극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급속히 무너져 가는 교세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혐오의 정치학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많은 평신도 개신교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질서(가족, 교회, 국가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품은 미움의 마음 하나와 거기서 내 뺀 미움의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혐오 대상들의 생명과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는 정말, 개신교인들 모두의 적절한, 합리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웃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그 존재부터 흔들릴 날이 곧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혐오의 개념 위에, 본 연구는 한국 극우 개신교의 혐오의 도덕과 정치학에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 받거나 동조하고 있는지, 그 객관적 사실을 분석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성 위에서만이 한국 개신교의 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발표 1.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이은아 박사

(이화여대)

순서

1. 연구 배경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조사결과 분석
 - 가. 종교생활과 가치관
 - 나. 차별에 대한 인식
 - 다.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4. 논의 및 과제

1. 연구 배경

1. 연구질문

- 개인의 종교 경험이 여성혐오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와 여성혐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 종교에 따른 종교생활과 인식의 차이, 종교 경험에 따른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 종교 경험에 따른 여성혐오적 태도와 인식의 차이 분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종교(개신교)의 역할과 방향 모색

3. 연구의 의미

- 여성혐오와 종교 경험의 관계 분석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개신교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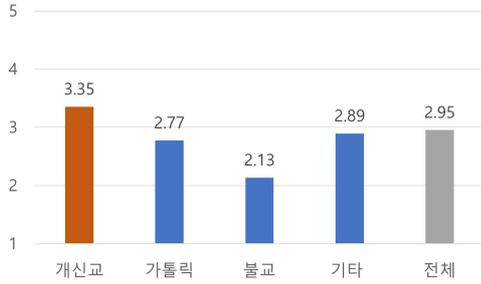
항목		개신교(N=327)	타종교(N=249)	종교없음(N=424)	전체(N=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44.6	45.0	56.4	49.7
	여성	55.4	55.0	43.6	50.3
연령	20대	14.4	9.2	24.3	17.3
	30대	20.2	12.4	17.2	17.0
	40대	20.5	21.7	18.2	19.8
	50대	13.1	28.9	20.0	20.0
	60대 이상	31.8	27.7	20.3	25.9
혼인상태	미혼	23.5	20.5	36.6	28.3
	기혼	65.4	63.9	55.7	60.9
	이혼·사별·별거	11.0	15.7	7.8	10.8
학력	고졸 이하	35.2	33.3	29.2	32.2
	대졸 이상	51.7	55.8	62.7	57.4
	대학원 이상	13.1	10.8	8.0	10.4

3. 조사결과 분석



가. 종교생활과 가치관

1) 신앙 목적 정기적 모임(예배, 공부, 봉사 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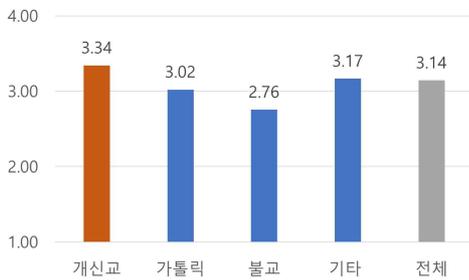
(1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49.330	3	49.777	30.543	.000
집단-내	932.210	572	1.630		
전체	1081.540	575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Duncan ^{a,b}	종교5유형	N	1	2	3
	불교	139	2.13		
	가톨릭	92		2.77	
	기타	18		2.89	2.89
	개신교	327			3.35
	유의확률		1.000	.639	.065

=> 종교에 따라 모임 참여 정도의 차이가 있음(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결과, **개신교 응답자가 신앙 목적의 정기적 모임에 더 참여하며, 불교가 참여하는 정도가 낮음.**

2) 개인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한 정도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점 매우 중요하다)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7.396	3	12.465	25.043	.000
집단-내	281.236	565	.498		
전체	318.633	568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종교5유형	N	1	2	3
개신교	324	1.67		
기타	18	1.83	1.83	
가톨릭	90		2.02	2.02
불교	137			2.28

=> 종교에 따라 개인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한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결과, **개신교가 가장 높고, 불교가 가장 낮음.**

3) 개인의 도덕, 신념, 가치관에 종교가 미친 영향



(1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 5점 매우 영향을 끼쳤다)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49.176	3	16.392	20.386	.000
집단-내	459.933	572	.804		
전체	509.109	575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종교5유형	N	1	2	3
개신교	327	1.82		
기타	18	2.06	2.06	
가톨릭	92		2.25	2.25
불교	139			2.50
유의확률		.174	.269	.161

=> 종교에 따라 개인의 도덕, 신념, 가치관에 종교가 미친 영향의 차이가 있음(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결과, **개신교가 가장 높고, 불교가 가장 낮음.**

4)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에 영향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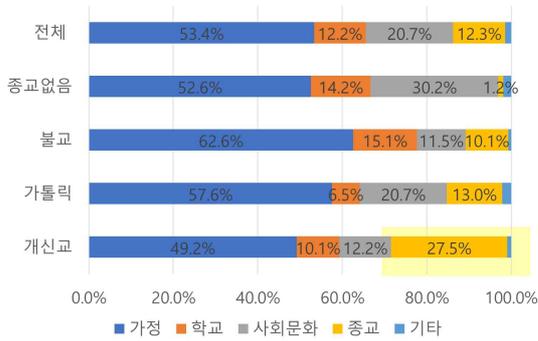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20.120	3	6.707	8.107	.000
집단-내	473.212	572	.827		
전체	493.332	575			

종교5유형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3
기타	18	1.83		
개신교	327	2.03	2.03	
가톨릭	92		2.32	2.32
불교	139			2.43
유의확률		.276	.107	.514

⇒ 종교에 따라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결과, **기타가 가장 높고, 불교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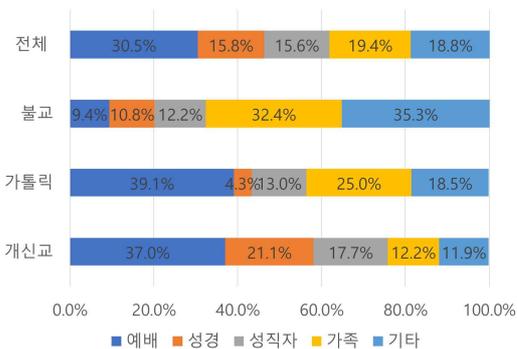
5) 개인의 도덕적 가치 형성에 가장 영향을 받은 경로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54.592 ^a	16	.000
우도비	169.762	16	.000
선형 대 선형결합	14.930	1	.000
유효 케이스 수	1000		

⇒ 개인의 도덕적 가치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가정(53.4%)>사회문화(20.7%)>종교(12.3%)>학교(12.2%)>기타(1.4%) 순, 반면 개신교는 가정(49.2%)>종교(27.5%)>사회문화(12.2%)>학교(10.1%)>기타(0.9%) 순으로 종교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종교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음(교차분석).

6) 자신의 종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운 경로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95.703 ^a	8	.000
우도비	101.964	8	.000
선형 대 선형결합	72.223	1	.000
유효 케이스 수	558		

⇒ 자신의 종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운 경로는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교차분석). 개신교는 전체에 비해 **예식과 성경, 성직자의 비중이 더 크고, 가족의 비중은 더 작음.**

7) 자신의 정치적 성향



(1점 보수적 - 7점 진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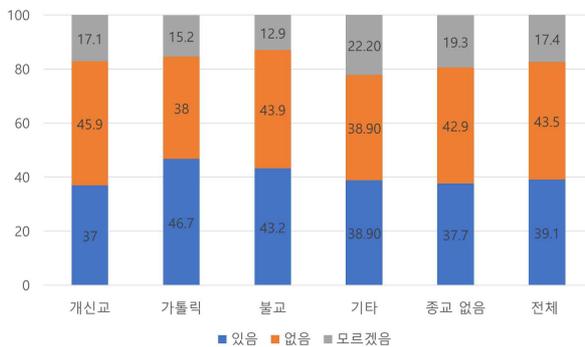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5.665	4	6.416	3.382	.009
집단-내	1887.854	995	1.897		
전체	1913.519	999			

Duncan ^{a,b}	종교5유형	N	유의수준 = 0.1에 대한 부분집합	
			1	2
	불교	139	3.75	
	개신교	327	3.97	3.97
	종교없음	424		4.18
	가톨릭	92		4.22
	기타	18		4.28
	유의확률		.360	.262

⇒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종교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일원배치분산분석), 기타(4.28점) > 가톨릭(4.22점) > 종교없음(4.18점) > 개신교(3.97점) > 불교(3.75점) 순임. 사후분석 결과, 불교가 가장 낮음.

나. 차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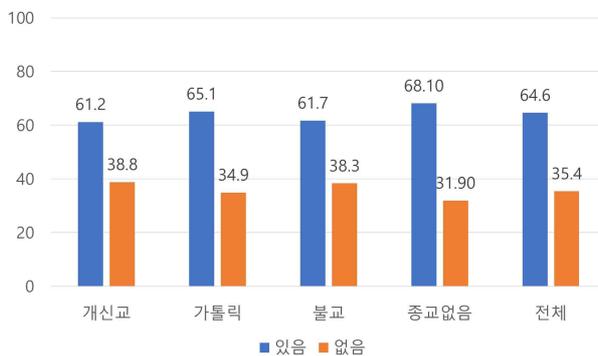
1) 지난 1년간 차별 목격 또는 경험 여부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713 ^a	8	.568
우도비	6.760	8	.563
선형 대 선형결합	.422	1	.516
유효 케이스 수	1000		

⇒ 10명 중 4명(39.1%)이 지난 1년간 차별을 목격 및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지난 1년간 성차별 목격 또는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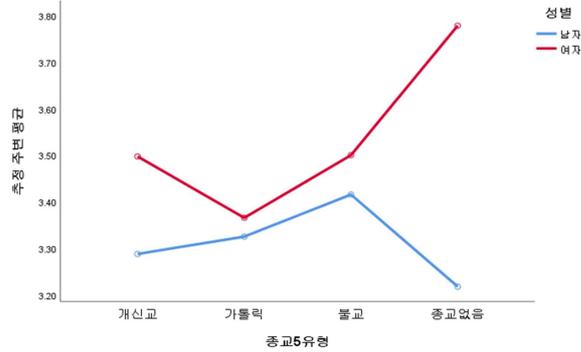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727 ^a	3	.631
우도비	1.730	3	.630
선형 대 선형결합	1.410	1	.235
유효 케이스 수	384		

⇒ 차별 목격 및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성차별을 목격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4.6%이며,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종교없음(68.1%)이 가장 높고 개신교(61.2%)가 가장 낮은 수준임.

3)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종교*성별)

(역리코드) 문1.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성 차별의 추정
주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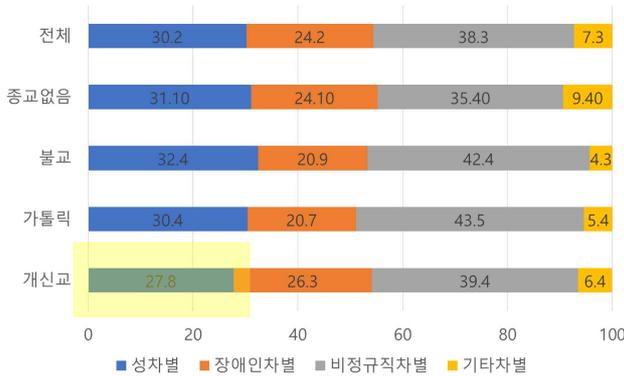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제곱합	자유도			
수정된 모형	38.045 ^a	7	5.435	7.050	.000
절편	7887.340	1	7887.340	10230.974	.000
종교	2.982	3	.994	1.289	.277
성별	8.431	1	8.431	10.936	.001
종교*성별	10.705	3	3.568	4.629	.003
오차	750.883	974	.771		
전체	12354.000	982			
수정된 합계	788.929	981			

a. R 제곱 = .048 (수정된 R 제곱 = .041)

(1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점 매우 심각하다)

⇒ 성별과 종교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 있음(이원배치 분산분석). 종교없음 여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없음 남성이 가장 낮음. 개신교의 경우, 다른 종교집단보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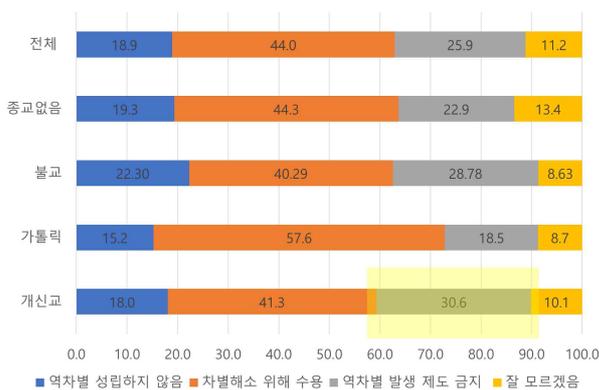
4)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차별(1순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0.074 ^a	9	.345
우도비	10.246	9	.331
선형 대 선형결함	.031	1	.859
유효 케이스 수	982		

⇒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차별(1순위)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는 비정규직 차별(38.3%) > 성차별(30.2%) > 장애인 차별(24.2%) > 기타(7.3%) 순이며,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개신교는 성차별(27.8%)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음.

5) 차별해소 정책의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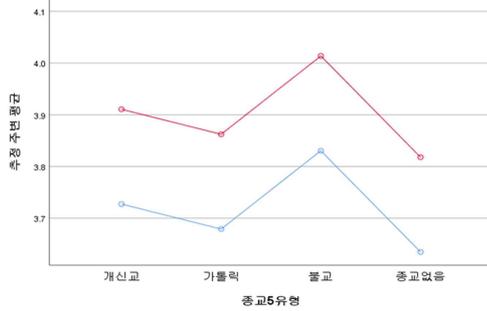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6.813 ^a	9	.052
우도비	16.610	9	.055
선형 대 선형결함	.010	1	.922
유효 케이스 수	982		

⇒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종교에 따른 차이가 있음.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개신교(30.6%)가 다른 집단보다 가장 높고, 가톨릭(18.5%)이 가장 낮음.

다.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 혐오표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함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문10. 귀하는 아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1) 혐오표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함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주변 평균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3.697 ^a	4	3.424	3.230	.012
절편	9875.696	1	9875.696	9316.255	.000
종교	4.425	3	1.475	1.391	.244
성별	8.143	1	8.143	7.682	.006
오차	1035.669	977	1.060		
전체	15149.000	982			
수정된 합계	1049.366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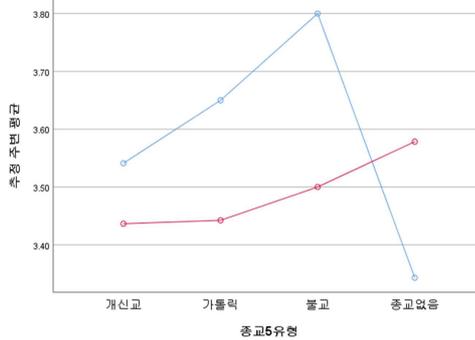
a. R 제곱 = .013 (수정된 R 제곱 = .009)

(1점 매우 동의한다 ~ 5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 문항에서 종교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며, 성별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 여성이 남성보다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역리코드) 문10. 귀하는 아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2)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주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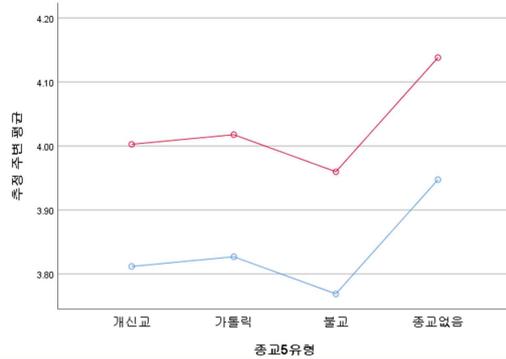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4.884 ^a	7	2.126	2.138	.037
절편	8417.061	1	8417.061	8464.167	.000
종교	3.966	3	1.322	1.329	.263
성별	1.495	1	1.495	1.503	.220
종교*성별	10.743	3	3.581	3.601	.013
오차	968.579	974	.994		
전체	12971.000	982			
수정된 합계	983.463	981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

⇒ 성별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종교없음 남성이 가장 동의정도가 낮고, 종교없음 여성이 가장 동의정도가 높음. 이를 제외하고 개신교 남성은 다른 종교 집단의 남성보다 낮고, 개신교 여성 역시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아서 개신교 여성과 남성이 정부의 개입에 대한 요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3) 혐오표현은 우리사회의 차별문화와 관련이 있다.

(역리코드) 문10. 귀하는 아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4) 혐오표현은 우리사회의 차별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 주변 평균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함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2.706 ^a	4	3.177	3.900	.004
절편	10532.663	1	10532.663	12930.526	.000
종교	5.161	3	1.720	2.112	.097
성별	8.827	1	8.827	10.836	.001
오차	795.823	977	.815		
전체	16218.000	982			
수정된 합계	808.530	981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

⇒ 혐오표현과 차별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는 종교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각하였으며, 종교와 성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문화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개신교는 종교없음과 가톨릭 다음으로 나타나 여성혐오와 차별문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1) 여성혐오적 인식 (5문항, Cronbach's $\alpha=.737$)

여성은 현실을 고려치 않고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한다

여성은 프로의식이 약하다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피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은 현실에서 차별이나 폭력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는 공격적이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2) 페미니즘 지지(4문항, Cronbach's $\alpha=0.710$)

초중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물가나 폭력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투운동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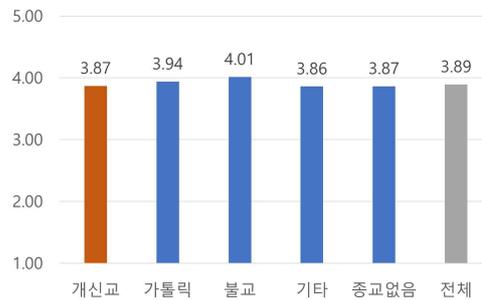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이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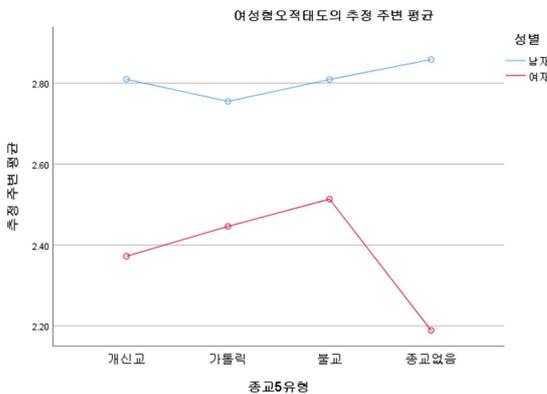
1) 여성혐오적 인식



2) 페미니즘 지지



1) 여성혐오적 인식(1) : 성별*종교



1) 여성혐오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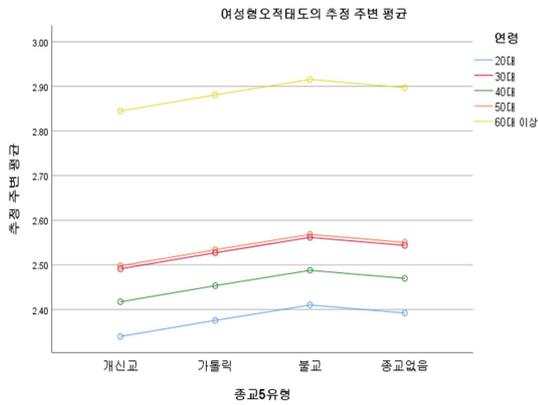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68.201 ^a	7	9.743	20.249	.000
절편	4529.408	1	4529.408	9413.396	.000
종교	2.261	3	.754	1.566	.196
성별	30.792	1	30.792	63.994	.000
종교*성별	5.575	3	1.858	3.862	.009
오차	468.656	974	.481		
전체	7074.680	982			
수정된 합계	536.857	981			

a. R 제곱 = .127 (수정된 R 제곱 = .121)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 여성혐오적 인식에서는 성별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 즉, 종교 없음 남성이 가장 높고 종교 없음 여성이 여성혐오적 인식이 가장 낮음. 그러나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개신교 남성과 불교 남성이 높고, 개신교 여성이 가장 낮음. 즉, 개신교 내에서 성별에 따른 여성혐오적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1) 여성혐오적 인식(2) : 연령*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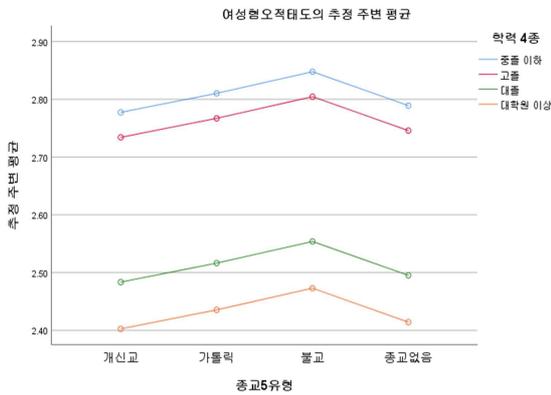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34.441 ^a	7	4.920	9.538	.000
절편	4268.102	1	4268.102	8274.290	.000
종교	.690	3	.230	.446	.720
연령	33.597	4	8.399	16.283	.000
오차	502.415	974	.516		
전체	7074.680	982			
수정된 합계	536.857	981			

a. R 제곱 = .064 (수정된 R 제곱 = .057)

Duncan ^{a,b,c}	연령	N	부분집합		
			1	2	3
	20대	170	2.3776		
	40대	194	2.4526	2.4526	
	30대	163	2.5227	2.5227	
	50대	198		2.5404	
	60대 이상	257			2.6778
	유의확률		.061	.262	1.000

⇒ 연령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략했으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사후분석 결과, 20대가 가장 낮고, 60대가 가장 높음.

1) 여성혐오적 인식(3): 학력*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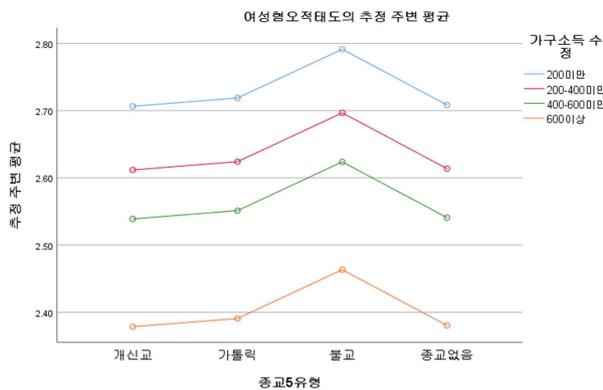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8.535 ^a	6	3.089	5.811	.000
절편	3569.180	1	3569.180	6713.880	.000
종교	.521	3	.174	.327	.806
학력	17.691	3	5.897	11.093	.000
오차	518.322	975	.532		
전체	7074.680	982			
수정된 합계	536.857	981			

a. R 제곱 = .035 (수정된 R 제곱 = .029)

Duncan ^{a,b,c}	학력 4종	N	부분집합	
			1	2
	대학원 이상	103	2.4194	
	대졸	561	2.5012	
	고졸	181		2.7503
	중졸 이하	137		2.8000
	유의확률		.309	.536

⇒ 학력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략했으며,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사후분석 결과, 대학원 이상과 대졸 집단에서 여성혐오적 인식 수준이 낮고, 고졸과 중졸 이하 집단에서 여성혐오적 인식수준이 높음.

1) 여성혐오적 인식(4) : 소득*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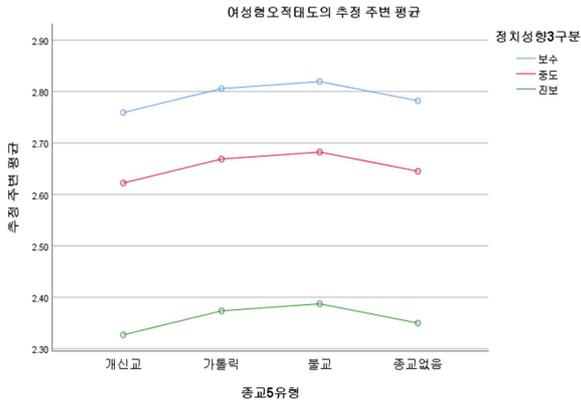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2.383 ^a	6	2.064	3.837	.001
절편	4452.045	1	4452.045	8276.383	.000
종교	.820	3	.273	.508	.677
소득	11.539	3	3.846	7.150	.000
오차	524.474	975	.538		
전체	7074.680	982			
수정된 합계	536.857	981			

a. R 제곱 = .023 (수정된 R 제곱 = .017)

Duncan ^{a,b,c}	가구소득 수 정	N	부분집합		
			1	2	3
	600이상	189	2.3947		
	400-600미만	274		2.5504	
	200-400미만	315		2.6248	2.6248
	200미만	204			2.7235
	유의확률		1.000	.272	.145

⇒ 소득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략했으며,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사후분석 결과, 6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인식 수준이 가장 낮고,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여성혐오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1) 여성혐오적 인식(5) : 정치적 성향*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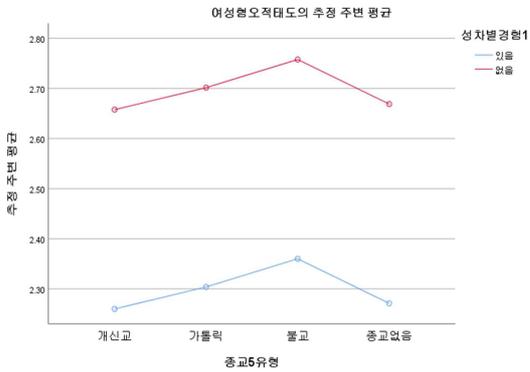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33.204 ^a	5	6.641	12.869	.000
절편		4598.469	1	4598.469	8911.104	.000
종교		.416	3	.139	.268	.848
정치적 성향		32.359	2	16.180	31.354	.000
오차		503.653	976	.516		
전체		7074.680	982			
수정된 합계		536.857	981			

a. R 제곱 = .062 (수정된 R 제곱 = .057)

Duncan ^{a,b,c}	정치성향3구분	N	부분집합		
			1	2	3
	진보	357	2.3496		
	중도	320		2.6450	
	보수	305			2.7823
	유의확률		1.000	1.000	1.000

⇒ 정치적 성향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략했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보수적 성향이 여성혐오적 인식이 가장 높고 진보적 성향이 가장 낮음.

1) 여성혐오적 인식(6) : 성차별 경험*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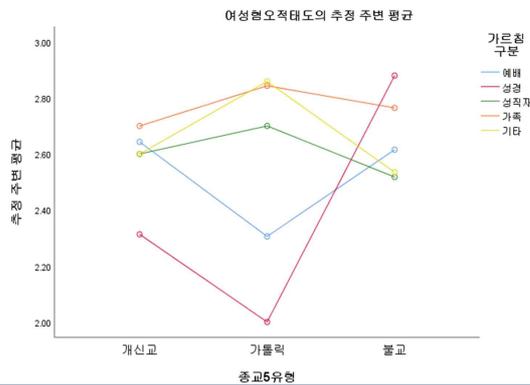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30.083 ^a	4	7.521	14.499	.000
절편		3523.774	1	3523.774	6793.416	.000
성차별 경험		29.239	1	29.239	56.369	.000
종교		1.097	3	.366	.705	.549
오차		506.774	977	.519		
전체		7074.680	982			
수정된 합계		536.857	981			

a. R 제곱 = .056 (수정된 R 제곱 = .052)

⇒ 성차별 경험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략했으며, 성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때 여성혐오적 인식이 낮아짐. 즉,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이에 관심을 가질수록 여성혐오적 인식이 낮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음.

1) 여성혐오적 인식(7) : 종교의 가르침 배운 경로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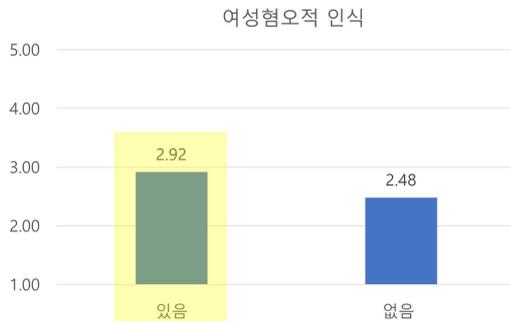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6.160 ^a	14	1.154	2.300	.005
절편		1891.320	1	1891.320	3768.606	.000
종교		.759	2	.379	.756	.470
가르침		4.468	4	1.117	2.226	.065
종교+가르침		9.454	8	1.182	2.355	.017
오차		272.511	543	.502		
전체		4033.760	558			
수정된 합계		288.672	557			

a. R 제곱 =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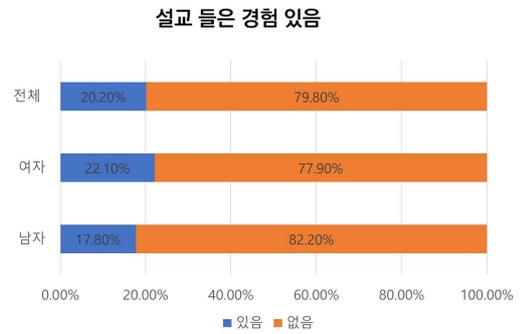
Duncan ^{a,b,c}	가르침 구분	N	부분집합	
			1	2
	경전	88	2.3955	
	종교의식	170	2.5694	2.5694
	성직자	87		2.5977
	기타	105		2.6114
	가족	108		2.7574
	유의확률		.075	.079

⇒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가 여성혐오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 개신교의 경우, 종교의 가르침과 배움이 경전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가정, 종교의식이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여성혐오적 태도가 낮음. 불교의 경우에는 반대로 경전으로 부터 종교의 배움을 얻은 오히려 여성혐오적 인식이 높았음.

1) 여성혐오적 인식(8) : 설교에서 “페미니즘은 교회를 위협하는 좌파사상” 들은 경험(개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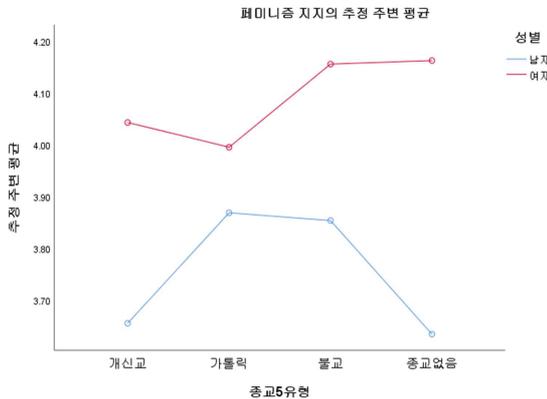


T = 4.350, p = .000***



⇒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을 때 여성혐오적 인식이 높음. (페미니즘 지지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2) 페미니즘 지지(1) : 성별*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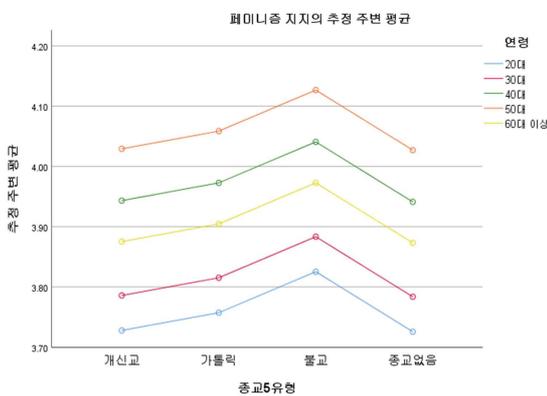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47.353 ^a	7	6.765	13.872	.000
절편	10347.915	1	10347.915	21219.644	.000
종교	2.439	3	.813	1.667	.172
성별	18.945	1	18.945	38.850	.000
종교*성별	3.700	3	1.233	2.529	.056
오차	474.978	974	.488		
전체	15419.188	982			
수정된 합계	522.332	981			

a. R 제곱 = .091 (수정된 R 제곱 = .084)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 성별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 즉, 종교 없음 여성이 가장 높고 종교없음 남성이 가장 낮음.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에 개신교 남성이 가장 낮고 여성은 불교 다음으로 높음. 개신교 내에서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 지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2) 페미니즘 지지(2): 연령*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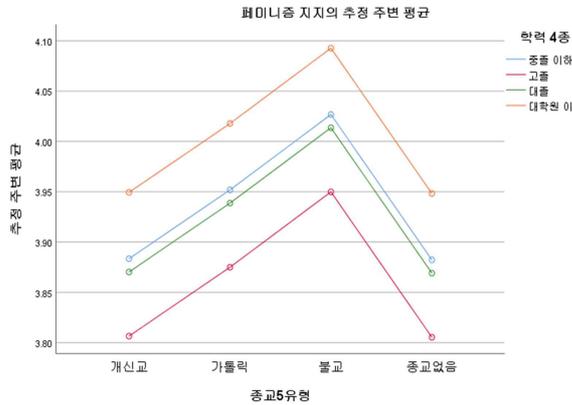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2.954 ^a	7	1.851	3.538	.001
절편	9939.134	1	9939.134	19004.980	.000
종교	1.124	3	.375	.717	.542
연령	10.198	4	2.550	4.875	.001
오차	509.378	974	.523		
전체	15419.188	982			
수정된 합계	522.332	981			

a. R 제곱 = .025 (수정된 R 제곱 = .018)

Duncan ^{a,b,c}	연령	N	부분집합			
			1	2	3	4
	20대	170	3.7338			
	30대	163	3.7945	3.7945		
	60대 이상	257		3.8940	3.8940	
	40대	194			3.9601	3.9601
	50대	198				4.0530
	유의확률		.412	.179	.371	.209

⇒ 연령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생각했으며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사후분석 결과, 20대가 페미니즘 지지가 가장 낮고, 50대가 가장 높음. 페미니즘 지지와 여성혐오적 인식은 연령에 따라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줌. 특히 20대는 여성혐오적 인식도 낮으나 페미니즘 지지도 낮음.

2) 페미니즘 지지(3) : 학력*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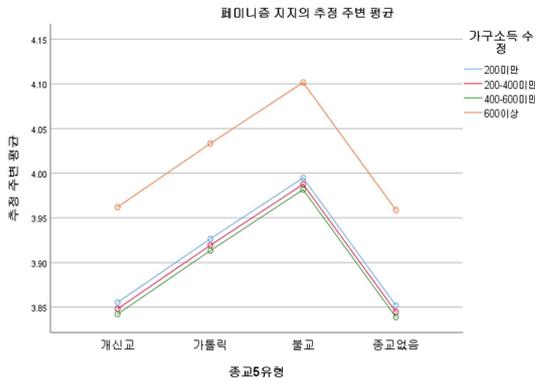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4.151 ^a	6	.692	1.302	.253
절편	7981.525	1	7981.525	15017.907	.000
종교	2.588	3	.863	1.623	.182
학력	1.396	3	.465	.875	.453
오차	518.180	975	.531		
전체	15419.188	982			
수정된 합계	522.332	981			

a. R 제곱 = .008 (수정된 R 제곱 = .002)

⇒ 학력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며, 여성혐오적 인식과 다르게 페미니즘 지지에서는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페미니즘 지지(4) : 소득*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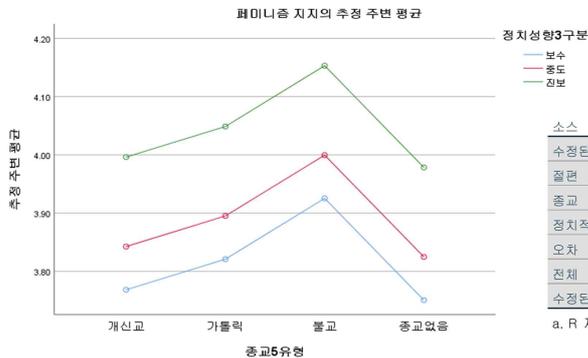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4.761 ^a	6	.793	1.495	.177
절편	10293.879	1	10293.879	19391.606	.000
New_Re	2.547	3	.849	1.599	.188
DQ5_2	2.005	3	.668	1.259	.287
오차	517.571	975	.531		
전체	15419.188	982			
수정된 합계	522.332	981			

a. R 제곱 = .009 (수정된 R 제곱 = .003)

⇒ 소득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종교와 소득에 따른 페미니즘 지지의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1) 페미니즘 지지(5) : 정치적 성향*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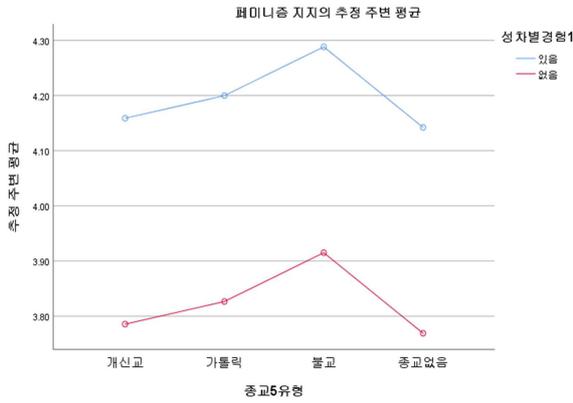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1.709 ^a	5	2.342	4.476	.000
절편	10421.647	1	10421.647	19919.853	.000
종교	3.422	3	1.141	2.180	.089
정치적 성향	8.954	2	4.477	8.557	.000
오차	510.623	976	.523		
전체	15419.188	982			
수정된 합계	522.332	981			

a. R 제곱 = .022 (수정된 R 제곱 = .017)

⇒ 정치적 성향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어 생략했으며, 정치성향과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개신교는 종교없음 보다는 높으나 가톨릭과 불교보다는 페미니즘 지지가 낮음. 정치성향은 진보적 성향일 때 페미니즘 지지가 높고, 보수적 성향 일 때 페미니즘 지지가 가장 낮음.

2) 페미니즘 지지(6) : 성차별 경험*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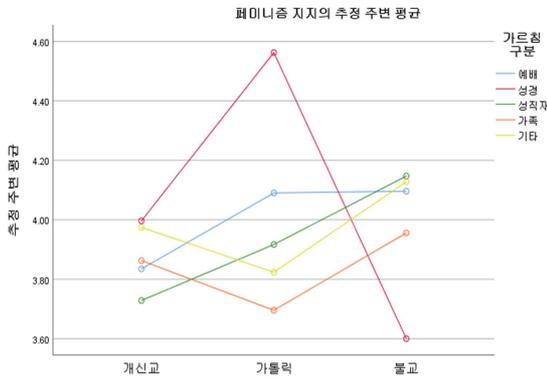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F	유의확률
	제한함	자유도	평균제곱		
수정된 모형	28.492 ^a	4	7.123	14.092	.000
절편	9087.030	1	9087.030	17977.574	.000
성차별 경험	25.737	1	25.737	50.918	.000
종교	2.378	3	.793	1.568	.195
오차	493.839	977	.505		
전체	15419.188	982			
수정된 합계	522.332	981			

a. R 제곱 = .055 (수정된 R 제곱 = .051)

⇒ 성차별 경험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생략했으며, 성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페미니즘 지지가 높아짐.

2) 페미니즘 지지(7) : 종교의 가르침 배운 경로 *종교



소스	제 III 유형			F	유의확률
	제한함	자유도	평균제곱		
수정된 모형	12.650 ^a	14	.904	1.896	.024
절편	4417.125	1	4417.125	9267.470	.000
종교	1.406	2	.703	1.475	.230
가르침	1.848	4	.462	.970	.424
종교*가르침	8.556	8	1.070	2.244	.023
오차	258.808	543	.477		
전체	8835.250	558			
수정된 합계	271.458	557			

a. R 제곱 = .047 (수정된 R 제곱 = .022)

⇒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가 페미니즘 지지에 영향을 미침.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종교의 가르침의 원천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페미니즘 지지도가 높았고, 성직자라고 응답한 경우 페미니즘 지지도가 낮음. 불교는 반대로 경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페미니즘 지지도가 가장 낮고, 성직자라고 응답한 경우 페미니즘 지지도가 가장 높음.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4. 논의 및 과제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 ✓ **논의 1.** 개신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종교의 참여도가 더 높고, 본인의 인생관과 종교관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개신교인은 개인의 가치형성에 종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응답 비중도 크게 나타나 개신교가 사회 구성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나 개신교는 성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장 우선시 개선되어야 하는 차별에서도 성차별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낮은 편임. 이는 성차별에 대한 경험 자체가 낮다기 보다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또한 차별 해소 제도의 역할별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교회 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 ✓ **논의 2.** <여성혐오적 인식>과 <페미니즘 지지> 모두에서 종교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개인의 인적배경(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과 가치관(정치성향, 종교관) 등에 따라서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이는 개신교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여성혐오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또한 구성원들의 인적배경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차별 인식을 통해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종교의 가르침과 신앙관 정립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신도들의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성직자를 비롯한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교회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개신교는 여성을 혐오하는가?

- ✓ **논의 3.** 개신교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나 개신교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혐오가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개신교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여성운동과 여성지위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위해 교회 내 여성의 지위와 성평등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신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임. 끝으로 본 조사는 일반적인 여성혐오 현상을 다루고 있어 개신교 내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규범, 또는 차별 등은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개신교의 주도적 역할과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함.

발표 2.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성신형 박사

(승실대)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순서

1. 설문 문항 구성 및 요인 분석 결과
2. 집단 간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비교 분석: ANOVA 분석 결과
3. 연구 결론 및 한계점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1. 설문 문항 구성 및 요인 분석 결과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난민 인식에 대한 설문의 문항구성 (총 14개 문항)

1) 인권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한국사회는 난민에 대해서 관대하다.
2) 난민신청자중에 가짜 난민이 많다.	9) 난민으로 남의 나라에 왔다면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
3) 세금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난민이 증가하면 범죄나 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11)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내 가족이 난민과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12)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한 시민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6) 우리 사회에서 난민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	13) 정부는 정당한 심사를 거쳐 난민 자격을 얻은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7)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시위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	14)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난민발생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개신교는 난민을 혐오하는가?

요인 분석 : 설문 문항 분류를 위한 [설문 문항간 요인분석] 실시

- 난민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14개 항목에 대한 KMO 검증 결과 .818이 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나 연구모형으로 적합함.
- 공통성 확인 결과,
 - (5) 내 가족이 난민과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항목(.292)와 (9) 난민으로 남의 나라에 왔다면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366)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를 넘어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항목 중 (5)번, (9)번 항목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함.

❖ 요인1 : 난민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요인 2 문항 (총 4문항)	Cronbach의 알파 (신뢰도계수)	의미상 문항 분류
(1) 인권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변수) (6) 우리 사회에서 난민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 (역변수) (8) 한국사회는 난민에 대해서 관대하다. (역변수) (10)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변수)	.456	난민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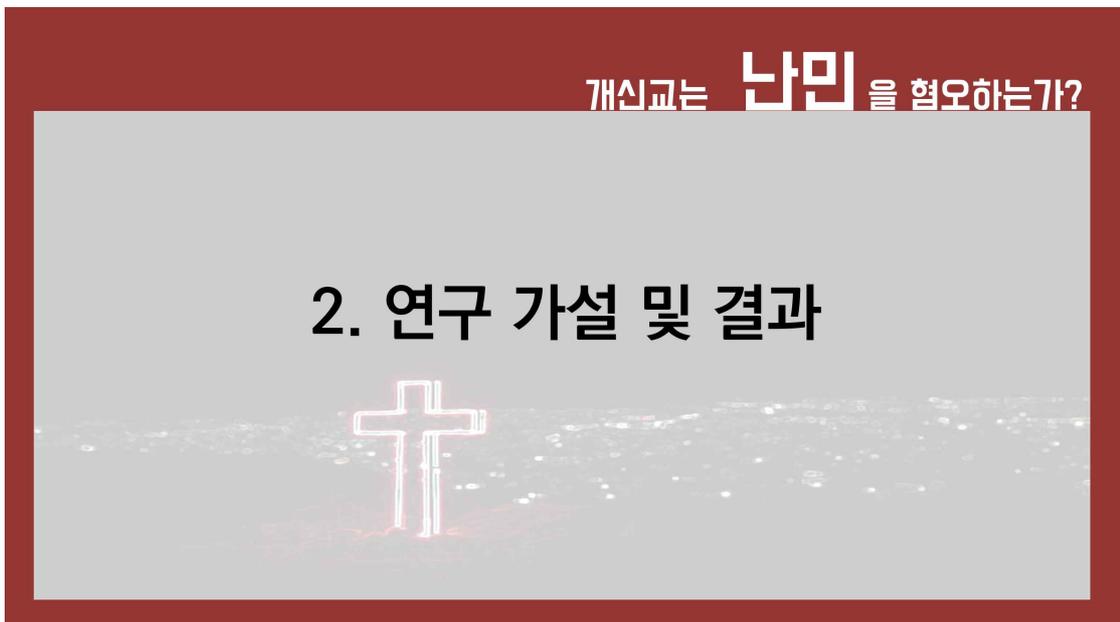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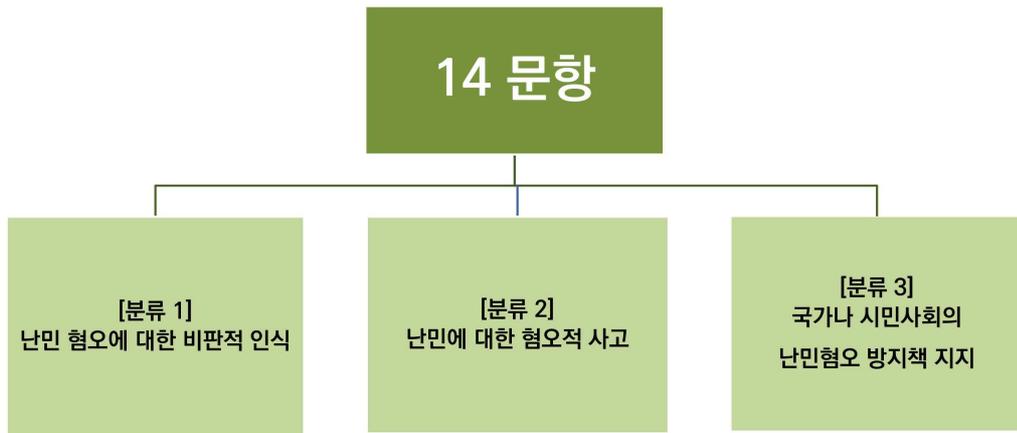
❖ 요인2 :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요인 2 문항 (총 6문항)	Cronbach의 알파 (신뢰도계수)	의미상 문항 분류
(2) 난민신청자중에 가짜 난민이 많다. (3) 세금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난민이 증가하면 범죄나 테러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5) 내 가족이 난민과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역변수) (9) 난민으로 남의 나라에 왔다면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 (11)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732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 **요인3 : 국가나 시민사회의 난민혐오 방지책 지지**

요인 3 문항 (총 4 문항)	Cronbach의 알파 (신뢰도계수)	의미상 문항 분류
(7)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시위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준다. (역변수) (12)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한 시민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역변수) (13) 정부는 정당한 심사를 거쳐 난민 자격을 얻은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역변수) (14)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난민발생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역변수)	.838	국가나 시민사회의 난민혐오 방지책 지지

❖ **문항 분류**



연구의 가설

가설 1. 개신교는 타종교 집단에 비해 난민에 대한 혐오의 정도가 다르다.

- 문항 분류에 따라 각각 1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 시행
(혐오 비판적 인식 / 혐오 방지 정책 지지 / 혐오적 사고 정도 / 혐오 표현에 따른 자유주의적 태도)

가설 2.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2-1. 종교의 종류와 연령대에 따른 비교 2요인 분산분석 (Two-way ANOVA) 시행
- 가설 2-2. 종교의 종류와 학력 수준에 따른 비교
- 가설 2-3. 종교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른 비교
- 가설 2-4. 종교의 종류와 정치 성향에 따른 비교

가설3~가설4 : → ‘개신교/비 개신교’로 구분하여 분석 진행

가설 3. 종교행사(모임)에 참여 정도에 따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개신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 문23. 귀하는 요즘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예배, 교리공부, 봉사 등)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 상관분석과 ANCOVA(공분산 분석) 진행

가설 4. 도덕적 가르침의 영향력 인지정도에 따라 난민 혐오적 사고가 개신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 문항 28 :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상관분석

가설5~가설6 : → ‘개신교’로 응답한 대상만 분석 진행

가설 5.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의 원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다르다. : 분산분석

가설 6.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다르다. : 상관분석

종교 별 [분류 1] 난민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정도

분산 분석

난민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계관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2.408	4	.602	2.315	.056
그룹 내	258.747	995	.260		
총계	261.155	999			

분산분석 결과,

종교에 따라 난민에 대한 혐오의 비판적 인식정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유의확률 0.56)

난민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Duncan^{a,b}

종교재분류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종교없음	424	3.1079	
기타	18	3.1111	
불교	139	3.1115	
개신교	327	3.1391	
천주교	92	3.2826	
유의수준			.087

사후 분석 결과,

천주교가 가장 높은 점수이지만, 다른 종교들과 비판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별 [분류 2] 난민 혐오 방지 정책 지지 정도

분산 분석

국가나 시민사회의 혐오방지책 지지정도

	계급합	df	평균 계급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2.832	4	.708	1.022	.395
그룹 내	689.127	995	.693		
총계	691.959	999			

국가나 시민사회의 혐오방지책 지지정도

Duncan^{a,b}

종교 재분류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개신교	327	3.2638
불교	139	3.2752
종교없음	424	3.3096
기타	18	3.3472
천주교	92	3.4565
유의수준		.254

분산분석 결과, **종교**에 따라 난민 혐오 방지에 대한 국가나 시민사회 정책 지지 정도는 차이가 없었고, 사후 분석 결과,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 보다 낮은 지지도를 가짐을 볼 수 있었다.

종교 별 [분류 3]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정도

분산 분석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계급합	df	평균 계급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313	4	.078	.167	.955
그룹 내	466.240	995	.469		
총계	466.553	999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Duncan^{a,b}

종교 재분류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기타	18	2.6111
불교	139	2.6127
개신교	327	2.6519
종교없음	424	2.6627
천주교	92	2.6667
유의수준		.692

분산분석 결과, **종교**에 따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사후 분석 결과에서도 각 종교간 사고 정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설 2-1. 종교의 종류와 연령대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증

종속변수: 난민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소스	유형 III 계급합	df	평균 계급	F	유의수준
수정할 모형	6.669 ^a	24	.278	1.065	.379
절편	2513.062	1	2513.062	9628.162	.000
종교	2.650	4	.662	2.538	.039
연령	1.473	4	.368	1.411	.228
종교 * 연령	3.736	16	.233	.895	.576
오류	254.486	975	.261		
총계	10087.813	1000			
수정할 총계	261.155	999			

a. R 계급 = .026 (조정된 R 계급 =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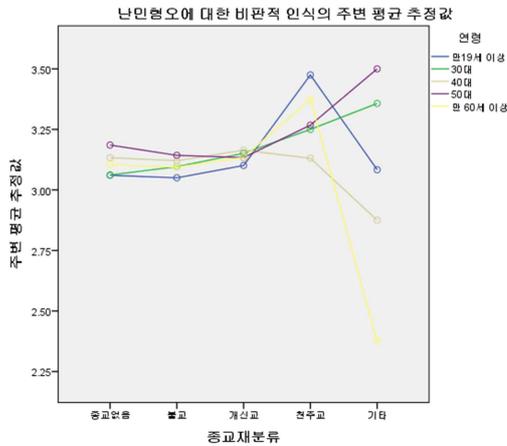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연령대** 모두 난민 혐오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종교재분류 * 연령

종속변수: 난민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종교재분류	연령	평균	표준 오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종교없음	만19세 이상	3.061	.050	2.962	3.159
	30대	3.062	.060	2.944	3.179
	40대	3.133	.058	3.019	3.247
	50대	3.185	.055	3.077	3.294
	만 60세 이상	3.105	.055	2.997	3.213
불교	만19세 이상	3.050	.162	2.733	3.367
	30대	3.086	.142	2.818	3.374
	40대	3.121	.095	2.935	3.307
	50대	3.143	.079	2.988	3.298
	만 60세 이상	3.094	.076	2.945	3.244
개신교	만19세 이상	3.101	.075	2.955	3.247
	30대	3.152	.063	3.028	3.275
	40대	3.164	.062	3.042	3.287
	50대	3.134	.078	2.981	3.287
	만 60세 이상	3.135	.050	3.036	3.233
천주교	만19세 이상	3.475	.162	3.158	3.792
	30대	3.250	.154	2.948	3.552
	40대	3.131	.111	2.912	3.350
	50대	3.268	.097	3.078	3.457
	만 60세 이상	3.375	.109	3.161	3.589
기타	만19세 이상	3.083	.295	2.504	3.662
	30대	3.357	.193	2.978	3.736
	40대	2.875	.255	2.374	3.376
	50대	3.500	.361	2.791	4.209
	만 60세 이상	2.375	.361	1.666	3.084

- 가설 2-1. **종교의 종류와 연령대**에 따른 비교



**천주교는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높고
개신교와 기타종교는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낮은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기타종교는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 가설 2-2. **종교의 종류와 학력 수준**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된 모형	3.707 ^a	9	.412	.881	.542
절편	1637.925	1	1637.925	3503.427	.000
종교	.872	4	.218	.467	.760
학력	.157	1	.157	.336	.562
종교 * 학력	2.097	4	.524	1.121	.345
오류	462.846	990	.468		
총계	7497.889	1000			
수정된 총계	466.553	999			

a. R 제곱 = .008 (조정된 R 제곱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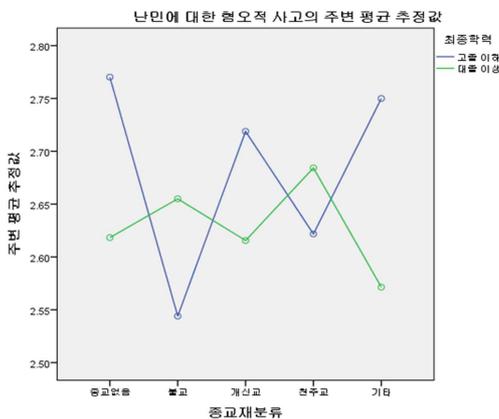
기술통계

종속변수: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종교재분류	최종학력	평균	표준 편차	N
종교없음	고졸 이하	2.7702	.62995	124
	대졸 이상	2.6183	.71727	300
	총계	2.6627	.69558	424
불교	고졸 이하	2.5440	.50968	53
	대졸 이상	2.6550	.65718	86
	총계	2.6127	.60567	139
개신교	고졸 이하	2.7188	.62336	115
	대졸 이상	2.6156	.74721	212
	총계	2.6519	.70689	327
천주교	고졸 이하	2.6218	.58416	26
	대졸 이상	2.6843	.71500	66
	총계	2.6667	.67802	92
기타	고졸 이하	2.7500	.39675	4
	대졸 이상	2.5714	.65930	14
	총계	2.6111	.60499	18
총계	고졸 이하	2.7024	.60560	322
	대졸 이상	2.6276	.71655	678
	총계	2.6517	.68339	1000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학력수준** 모두 난민 혐오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설 2-2. **종교의 종류와 학력 수준**에 따른 비교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 개신교는
학력이 낮을수록
천주교는 학력이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높았다.

- 가설 2-3. **종교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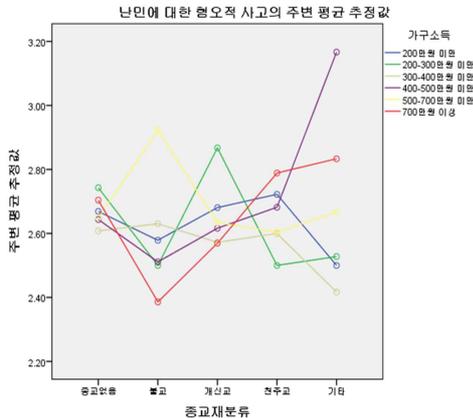
종속변수: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항 모형	9.342 ^a	29	.322	.683	.896
절편	1719.428	1	1719.428	3647.870	.000
종교	.665	4	.166	.353	.842
가구소득	.565	5	.113	.240	.945
종교 * 가구소득	7.261	20	.363	.770	.752
오류	457.211	970	.471		
총계	7497.889	1000			
수정 합계	466.553	999			

a. R 제곱 = .020 (조정된 R 제곱 = -.009)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소득 수준** 모두 난민 혐오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가설 2-3. **종교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른 비교**



기독교 이외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 개신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혐오적 사고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가설 2-4. **종교의 종류와 정치 성향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항 모형	16.633 ^a	14	1.188	2.601	.001
절편	1622.187	1	1622.187	3551.422	.000
종교	.123	4	.031	.067	.992
정치성향	3.534	2	1.767	3.869	.021
종교 * 정치성향	4.257	8	.532	1.165	.317
오류	449.920	985	.457		
총계	7497.889	1000			
수정 합계	466.553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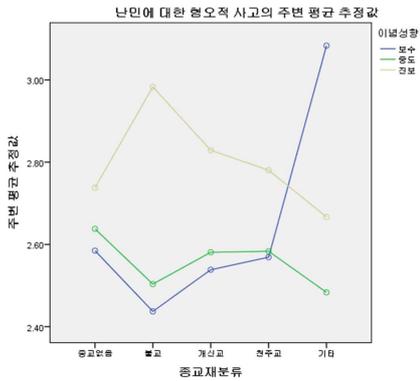
이원 분산분석 결과, **정치 성향**이 난민 혐오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통계

종속변수: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종교재분류	이념성향	평균	표준 편차	N
종교없음	보수	2.5848	.68802	110
	중도	2.6378	.68153	150
	진보	2.7378	.71001	164
	총계	2.6627	.69558	424
불교	보수	2.4371	.56541	53
	중도	2.5035	.48216	47
	진보	2.9829	.64413	39
	총계	2.6127	.60567	139
개신교	보수	2.5383	.71894	113
	중도	2.5809	.70499	101
	진보	2.8289	.66684	113
	총계	2.6519	.70689	327
천주교	보수	2.5690	.65088	29
	중도	2.5833	.56986	22
	진보	2.7805	.74483	41
	총계	2.6667	.67802	92
기타	보수	3.0833	.11785	2
	중도	2.4833	.52382	10
	진보	2.6667	.78881	6
	총계	2.6111	.60499	18
총계	보수	2.5440	.67490	307
	중도	2.5929	.65164	330
	진보	2.7961	.69567	363
	총계	2.6517	.68339	1000

- 가설 2-4. **종교의 종류와 정치 성향에 따른 비교**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에서는 보수와 중도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낮았고, 불교에서는 진보와 기타종교에서는 보수성향이 혐오적 사고가 높았다.

가설3~가설4 : → '개신교/비 개신교'로 구분하여 분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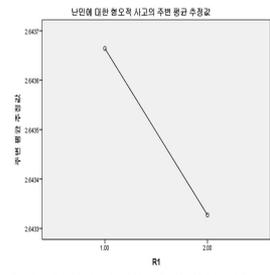
- 문23. 귀하는 요즘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 (예배, 교리공부, 봉사 등)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된 모형	.454 ^a	2	.227	.498	.608
절편	638.226	1	638.226	1399.296	.000
Q23	.401	1	.401	.880	.349
개신교우	1.425E-5	1	1.425E-5	.000	.996
오류	261.348	573	.456		
총계	4287.000	576			
수정 합계	261.802	575			

a. R 제곱 = .002 (조정된 R 제곱 = -.002)



공분산분석(ANCOVA)결과,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의 참여 정도를 보장하였을 때, 개신교인지 아닌지 유무에 따라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다르지 않았다.**

가설3~가설4 : → '개신교/비 개신교'로 구분하여 분석 진행

- 문항 28 :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역코딩)

상관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역리코딩) 문28. 귀하는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나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Pearson 상관계수	1	.046
	유의수준(양측)		.272
	N	1000	576
(역리코딩) 문28. 귀하는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나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earson 상관계수	.046	1
	유의수준(양측)	.272	
	N	576	576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와 남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설3~가설4 : → '개신교/비 개신교'로 구분하여 분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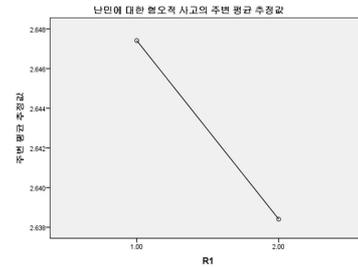
- 문항 28 :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역코딩)

오른쪽트 간 효과 결정

종속변수: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된 모형	.561 ^a	2	.280	.615	.541
절편	197.359	1	197.359	432.881	.000
RQ28	.508	1	.508	1.114	.292
개신교무	.011	1	.011	.024	.876
오류	261.242	573	.456		
총계	4287.000	576			
수정된 합계	261.802	575			

a. R 제곱 = .002 (조정된 R 제곱 = -.001)



모형에 표시되는 공백항은 다음 코를 사용하여 제거됩니다. (적린코드) 변경: 귀하는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888

공분산분석(ANCOVA)결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정하였을 때도, 개신교인지 아닌지 유무에 따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다르지 않다.

- 문항 27 :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로 어디서 배웠는가

순위	응답 항목	N(인원)	[분류 3]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1	종교의식(예배)	121	2.5689
2	성경	69	2.9734
3	성직자	58	2.5862
4	가족	40	2.4542
5	개인적 명상이나 기도	17	2.8039
6	성경 이외의 종교서적	12	2.4167
7	기타	7	2.9286
8	지인	3	1.9444
	전체	327	2.5845

} “[기타]”

빈도가 적은 항목 5(개인적 명상이나 기도) ~ 항목 8(지인) 까지를 [기타]로 새로 정의하여 기독교인들 중에서 ANOVA 분석 시행

- 문항 27 :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로 어디서 배웠는가

분산 분석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10.007	4	2.502	5.269	.000
그룹 내	152.894	322	.475		
총계	162.901	326			

One way ANOVA 분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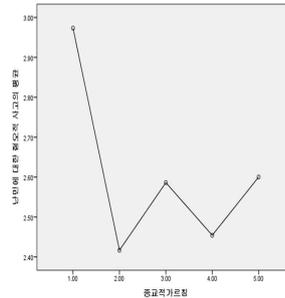
기독교인들 내에서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어디로 여기는지에 따라 난민 혐오적 사고가 유의미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유의확률 0.000)

- 문항 27 :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로 어디서 배웠는가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Duncan^{a,b}

종교적가르침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2.00	12	2.4167	
4.00	40	2.4542	
3.00	58	2.5862	
5.00	148	2.6002	
1.00	69		2.9734
유의수준		.323	1.000



사후분석 결과,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이 성경으로부터 온다고** 대답한 기독교인이 경전이외의 기독교서적이라고 응답한 기독교인들보다 난민 혐오적 사고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20-3. 귀하는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가** 예수님의 복음에 잘 부합한다고 (역코딩) **생각하십니까?**

상관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역리코드) 문20-3. 귀하는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가 예수님의 복음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Pearson 상관계수 유의수준(양측) N	1 327	-.045 .420 327

목회자 설교에 대한 신뢰와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목회자 설교에 대한 신뢰정도가 혐오적 사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문13-11.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관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제주도예멘 이슬람교도라는 사실과 관련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	Pearson 상관계수	1	.525**
	유의수준(양측)		.000
	N	327	327

** 상관이0.01 수준에서유의합니다(양측).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이슬람교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과 난민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슬람교도라는 것이 난민혐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연구 결론 및 한계



- 개신교 신앙과 난민 혐오는 크게 상관 관계가 없었고, **항목 별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나 이념,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난민 혐오 현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단지 개별 항목별 생각해볼 차이가 몇 가지 발견되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지점은 자신의 신앙을 **성서를 통해서 배웠다고** 대답한 개신교인들이 난민 혐오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성경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에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난민 혐오 현상은 **이슬람 혐오와 연결되어서** 크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난민(디아스포라) 신학의 정립:** 신구약 성서의 전통 (게르 - 장기 이주민, 토샤브 - 임시 노동자(노예취급당함), 롯기의 헤세드, 파레피데모이스 - 종교적 난민,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
2. **사랑의 윤리 실천:**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관용과 환대 → 황금율을 넘어선 사랑의 윤리 (원수를 사랑하라, '초윤리')
3. **이슬람에 대한 이해:** 한국은 다종교 사회 - 테러와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발표 3.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송진순 박사

(이화여대)

순서

1. 한국사회와 노인혐오
2. 개신교와 노인혐오
 - 1) 설문 문항 간 요인분석
 - 2) 개별 문항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인식
 - 3) 요인 성분에 따른 노인혐오 인식 및 노인에 대한 인식
3. 결론 및 제언

1. 한국 사회와 노인 혐오

1. 한국 사회와 노인 혐오



대한민국, 고령사회로 진입

65세 이상 인구 7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를 처음 넘어,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

전남이 21.4%로 가장 높고,
세종이 9.7%로 가장 낮아

[중앙일보] 65세 이상 인구 첫 14% 넘어...한국 '고령사회' 첫 공식 진입
<https://news.joins.com/article/21901412>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인구(5175만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7월 31일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75만5000명으로 총인구(5127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 였다. 광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1.4%)으로 유엔 기준으로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 최근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대두되는 노인 혐오 현상

2017년 신분당선은 무임승차 손실을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의 요금 청구권을 국토부에 신고했다.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 과실과 노인 범죄보도들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극우 보수집단인 태극기 부대를 노인으로 상정하고,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하고 무례한 노인에 대해 반감과 혐오표현(노슬아치, 노인충, 틀딱충)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혐오 현상이 보여주듯 혐오의 기저에는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 분노와 좌절이 도사리고 있다. 노인혐오 역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에서 '잉여인간'으로 전락한 노인에게 대한 비하와 적대에서 비롯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비생산 인구이자 복지혜택의 수혜자인 노인은 경제난과 취업난에 치인 젊은 세대에게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다. 경제활동 밖으로 밀려난 노인들은 비효율적, 비생산적 존재이자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노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자 공존하기 힘든 존재로 거부당하고 있다.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이 시대의 혐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신교,
혐오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할 만큼 혐오의 주동자로 인식되고 개신교는,
-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 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한국 사회 만큼이나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세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혐오'와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지지도'에서 개신교, 비개신교인 혹은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 개신교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문제에 관한 개신교의 현황을 점검한다.

2. 개신교와 노인 혐오



1) 설문 문항 간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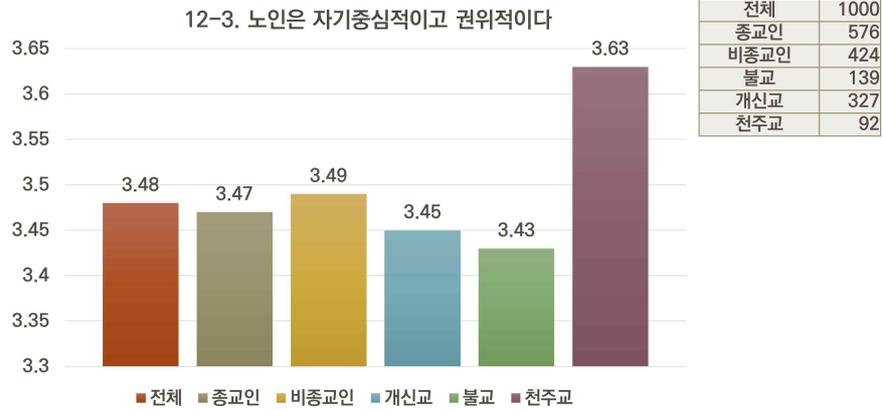
- 노인혐오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13개 항목에 대해서 KMO 검증 결과 .798가 나와 **상관관계 매우 높음**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와 **연구모형으로 적합함**
- 공통성 확인 결과 모든 항목에서 .4를 넘어서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Cronbach 신뢰도 통계 지수 상 처음 두 개의 성분(요인1,2)은 유효하고, 나머지는 두 성분은 유효하게 보기 어려워 세부 문항으로 검정을 진행함

<표1> 문항 간 요인분석

성분 측정 변수	요인1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경도	요인2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노인혐오 경험과 심각성*	표준화된 신뢰계수 α
(11)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와 공존과 소통을 위한 문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764	-.017	.174	.229	.727
(13)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724	.079	.131	.114	
(10) 빈곤한 노인을 위한 복지를 늘려야 한다	.657	.162	-.021	.109	
(12) 노인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640	.277	.168	-.121	
(3) 노인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다	-.040	.740	-.113	.105	.585
(4)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이다	.085	.664	.223	.005	
(5)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64	.586	.125	.001	
(9) 노인을 혐오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190	.494	-.201	.485	.542
(1) 나는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033	.036	.844	-.119	
(2) 노인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334	.050	.600	.225	
(6) 나는 노인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	.092	.436	.469	.398	-.141
(8) 나는 노인을 노인층, 연금층, 틀딱층, 노술아치 등으로 지칭한 적이 있다	.226	-.030	.047	.812	
(7) 우리사회에서 노인혐오 문제가 심각하다	.403	-.206	-.156	-.414	

2-2) 개별 문항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인식

가.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1



2-2) 개별 문항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인식

나.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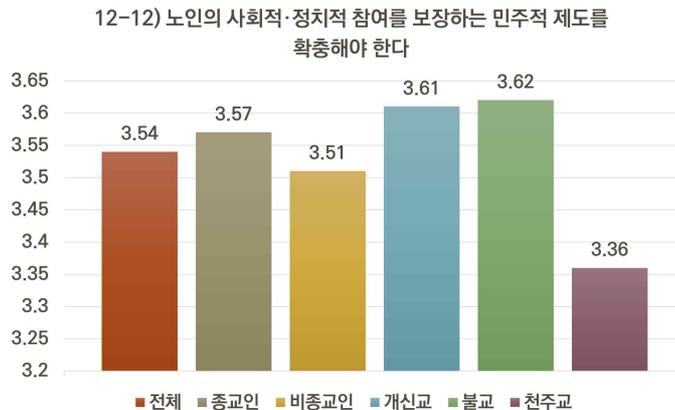
2-2) 개별 문항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인식

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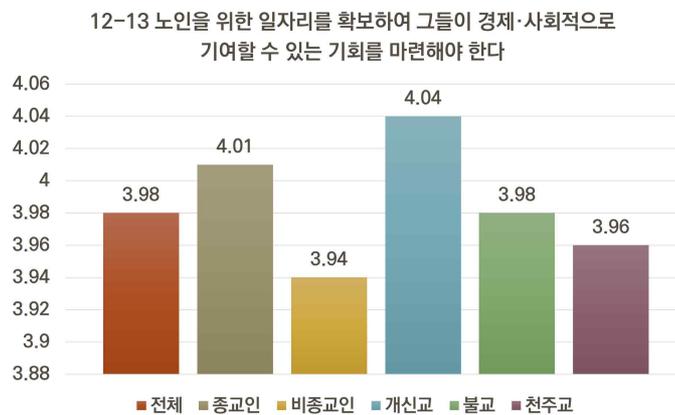
2-2) 개별 문항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인식

라. 노인의 정치참여 지지도



2-2) 개별 문항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인식

마. 노인의 경제활동 지지도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 설문조사 결과 1차 자료의 평균값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은 개신교가 불교에 이어 낮은 편이었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000명의 응답자 중 개신교인은 타종교인과 비종교인들에 대해 크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문항인 경제활동 지지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참여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신교에서는 노인혐오에 대한 인식이나 혐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장 참조]

-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회 크기, 신앙년수,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 목회자의 설교부함도 등을 나눠 확인한 결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개신교가 시민사회와 비슷한 수준에서 노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령에서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실제 노인

바. 각 종교별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의 차이

노인 혐오적 인식 (요인2)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1. 종교 없음	424	3.0195	0.71773	0.03486	2.9509	3.0880	1.00	5.00
2. 불교	139	2.9532	0.68404	0.05802	2.8385	3.0680	1.25	5.00
3. 개신교	327	2.9633	0.69438	0.03840	2.8878	3.0388	1.25	5.00
4. 천주교	92	3.0978	0.63868	0.06659	2.9656	3.2301	1.50	5.00
5. 기타	18	3.0972	0.65383	0.15411	2.7721	3.4224	1.75	4.00
전체	1000	3.0005	0.69749	0.02206	2.9572	3.0438	1.00	5.00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955	4	0.489	1.005	0.404
집단-내	484.045	995	0.486		
전체	486.000	999			

*각 종교별 노인혐오적 인식은 ANOVA 분석 결과 유의확률 0.404로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다.

- 앞의 결과와 함께 노인혐오적 인식에 대한 각 종교별 분석 결과, **개신교의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이 다른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시 말해 개신교가 노인혐오의 생산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 각 문항별 개신교인, 타종교인, 비종교인 내 연령별 상관관계 분석(ANOVA)

표A 개신교인(327)

개신교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2) 노인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집단-간 8.276 집단-내 177.418 전체 185.694	4 322 326	2.069 0.551	3.755	0.005
(3) 노인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다	집단-간 7.448 집단-내 245.469 전체 252.917	4 322 326	1.862 0.762	2.443	0.047
(4)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이다	집단-간 16.807 집단-내 398.276 전체 415.083	4 322 326	4.202 1.237	3.397	0.010
(12) 노인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집단-간 5.672 집단-내 256.004 전체 261.676	4 322 326	1.418 0.795	1.783	0.132
(13)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집단-간 7.823 집단-내 187.737 전체 195.560	4 322 326	1.956 0.583	3.354	0.010

표B 타종교인(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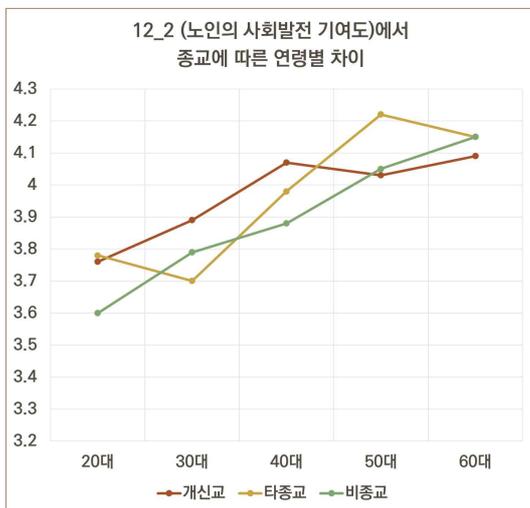
타종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2) 노인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집단-간 8.449 집단-내 146.972 전체 155.422	4 244 248	2.112 0.602	3.507	0.008
(3) 노인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다	집단-간 1.030 집단-내 161.219 전체 162.249	4 244 248	0.257 0.661	0.390	0.816
(4)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이다	집단-간 8.956 집단-내 257.004 전체 265.960	4 244 248	2.239 1.053	2.126	0.078
(12) 노인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집단-간 4.432 집단-내 195.792 전체 200.225	4 244 248	1.108 0.802	1.381	0.241
(13)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집단-간 3.499 집단-내 126.436 전체 129.936	4 244 248	0.875 0.518	1.688	0.153

표C 비종교인(424)

비종교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2) 노인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집단-간 17.504 집단-내 238.286 전체 255.790	4 419 423	4.376 0.569	7.695	0.000
(3) 노인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다	집단-간 0.537 집단-내 319.425 전체 319.962	4 419 423	0.134 0.762	0.176	0.951
(4)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인들이다	집단-간 14.472 집단-내 489.669 전체 504.142	4 419 423	3.618 1.169	3.096	0.016
(12) 노인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집단-간 15.430 집단-내 318.549 전체 333.979	4 419 423	3.857 0.760	5.074	0.001
(13)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집단-간 5.843 집단-내 246.798 전체 252.642	4 419 423	1.461 0.589	2.480	0.043

*유의 확률이 0.05이하로 노란색 항목이 연령별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은 12_12 노인의 사회정치참여도를 제외하고 연령대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했고, 반면 노인 혐오적 인식이 낮았으며, 노인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 타종교인은 12_2 노인의 사회발전 기여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발전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다른 항목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비종교인은 12_3 노인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제외하고 연령대별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했고, 반면 태극기집회관련 노인 혐오적 인식이 낮았으며, 노인의 사회정치 및 경제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교별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인의 사회발전 기여도”라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그래프로 비교한 결과,

- 개신교인은 연령대별로 완만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 타종교인은 개신교인과 같은 변화 수준에서도 30대와 50대의 인식 차이가 컸다.
- 비종교인은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종교인에 비해 변화의 차이가 다소 컸다.
-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세대 간 차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 공동체의 권위구조 및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완만한 차이이기는 하나 문항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는 것은 교회와 한국 사회가 가부장제 권위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자기혐오같은 부정의 경향성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요인성분에 따른 노인 혐오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 A. 노인 혐오적 인식과 다른 성분 간 상관관계
- B.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지지도와 다른 성분 간 상관관계
- C. 개신교 내 노인 혐오적 인식과 다른 문항 간 상관관계
- D. 개신교 내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지지도와 다른 문항 간 상관관계
- E. 개신교 내 노인 혐오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와 경제윤리 간 상관관계
- F. 개신교 내 노인 혐오와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의 영향관계 분석

A. 노인 혐오적 인식과 다른 성분 간 상관관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혐오적 인식	남자	497	2.9678	0.70887
	여자	503	3.0328	0.68523
유의확률 0.141				
종교유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혐오적 인식	종교 없음(무교)	424	3.0195	0.71773
	종교 있음	576	2.9865	0.68249
유의확률 0.461				
혼인상태(전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혐오적 인식	미혼	283	3.1210	0.76502
	기혼/그외	717	2.9529	0.66352
유의확률 0.001				
혼인상태(개신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혐오적 인식	미혼	77	3.0325	0.82950
	기혼/그외	250	2.9420	0.64754
유의확률 0.318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에 관해

- 성별 차이에서는 유의확률 0.141로 혐오 인식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확률 0.461로 평균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와 노인 혐오인식 간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장의 “종교별 노인혐오에 대한 결과”에서 보듯이 불교에 이어 개신교가 혐오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노인혐오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거나 또한 세대 간 차이를 비롯한 노인혐오가 있다 해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이 많은 교회 권력자(장로나 목사)/연장자에 의한 전통적 가치관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는 혐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개신교 내에서 따로 조사 한 결과 결혼여부는 혐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지지도와 다른 성분 간 상관관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도	1 남자	497	3.8587	0.59209
	2 여자	503	3.9453	0.52335
유의확률 0.014				
종교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도	종교인	576	3.9093	0.55297
	비종교인	424	3.8927	0.56986
유의확률 0.643				
기독교인/비기독교인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도	개신교	327	3.9419	0.54236
	비개신교	673	3.8830	0.56773
유의확률 0.119				
혼인상태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도	미혼	283	3.8587	0.60501
	기혼/그외	717	3.9195	0.54065
유의확률 0.122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도에 관해

-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확률 0.014로 근소한 평균값의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의 평균값에 큰 차이가 없고 유의확률이 0.643으로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도 평균값이 차이가 없고 유의확률이 0.119로 나타나 개신교인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 혼인상태에 따른 경우에도 유의확률 0.122로 평균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C. 개신교 내 노인 혐오적 인식과 다른 문항 간 상관관계

신앙년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5년 미만	20	2.9250	0.64431	0.14407
2. 5-10년	28	3.0446	0.76695	0.14494
3. 10-20년	39	3.0577	0.70585	0.11303
4. 20년 이상	240	2.9417	0.69006	0.04454
전체	327	2.9633	0.69438	0.03840

유의확률 0.708

교회규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소(~100명)	77	2.8961	0.63395	0.07226
2. 중(100-500명)	97	2.8608	0.68842	0.06990
3. 대(500명~)	153	3.0621	0.71766	0.05802
전체	327	2.9633	0.69438	0.03840

유의확률 0.061

정치성향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보수	113	2.8938	0.71714	0.06746
2. 중도	101	2.9975	0.68693	0.06835
3. 진보	113	3.0022	0.67851	0.06383
전체	327	2.9633	0.69438	0.03840

유의확률 0.068

- 개신교 내에서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은 신앙년수, 교회규모, 정치성향에 따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애초에 노인 혐오적 인식이 다른 종교나 시민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통계 결과 값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 추정컨대 개신교인은 혐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신교의 신앙관이 노인 혐오에 대해 약간의 길항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부합도(유의확률 0.219)와 노인 혐오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D. 개신교 내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지지도와 다른 문항 간 상관관계

신앙년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5년 미만	20	3.7625	0.57052	0.12757
2. 5-10년	28	3.7679	0.72306	0.13665
3. 10-20년	39	3.9872	0.41338	0.06619
4. 20년 이상	240	3.9698	0.53082	0.03426
전체	327	3.9419	0.54236	0.02999

유의확률 0.112

교회규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소(~100명)	77	3.8994	0.53382	0.06083
2. 중(100-500명)	97	3.9820	0.56854	0.05773
3. 대(500명~)	153	3.9379	0.53132	0.04295
전체	327	3.9419	0.54236	0.02999

유의확률 0.604

정치성향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 보수	113	3.8584	0.55388	0.05210
2. 중도	101	3.8515	0.56919	0.05664
3. 진보	113	4.1062	0.46747	0.04398
전체	327	3.9419	0.54236	0.02999

유의확률 0.000

- 개신교 내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에 관해 신앙년수, 교회규모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보수, 중도, 진보의 정치성향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정도가 높았다.** 이는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결과적으로 노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지원에 대한 지지 정도는 교회와 시민사회 간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교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교회는 이에 대한 특별한 목회 방향이나 문제의식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 개신교 내 노인 혐오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와 경제윤리 간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정도	노인 혐오적 인식	상생 경제 윤리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도	Pearson 상관	1	-.121	.366	-.046
	유의확률 (양측)		0.029	0.000	0.411
	N	327	327	327	327
노인 혐오적 인식	Pearson 상관	-.121	1	-.052	-.124
	유의확률 (양측)	0.029		0.351	0.025
	N	327	327	327	327
상생 경제 윤리	Pearson 상관	.366	-.052	1	.145
	유의확률 (양측)	0.000	0.351		0.009
	N	327	327	327	327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Pearson 상관	-.046	-.124	.145	1
	유의확률 (양측)	0.411	0.025	0.009	
	N	327	327	327	327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설문 문항 12번의 노인혐오 문항과 18번의 경제윤리에 대한 요인분석 후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상생의 경제윤리 요인

2) 국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6)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생해야 한다 7)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 상속 등과 같은 불로(不勞)소득이 많은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가 위협받는다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요인

1) 경제적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4)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개신교인 대상으로 노인혐오의 요인들과 경제윤리 요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노인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와 상생의 경제윤리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신자유주의 경제윤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노인혐오적 인식과 상생의 경제윤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신자유주의 경제윤리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표에는 없으나 전체설문대상자와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상생의 경제윤리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각각.381, .386)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가 개신교만의 차별점은 아닌 것이다.

F. 개신교 내 노인 혐오와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의 영향관계 분석

모형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혐오적 인식	(상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3.273	0.253			12.923	0.000
	22. 귀하가 현재의 종교를 믿은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0.101	0.046	-0.142		-2.196	0.029
	23. 귀하는 요즘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예배, 교리공부, 봉사 등)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0.007	0.040	0.014		0.186	0.853
	6.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합니까?		0.009	0.030	0.020		0.317	0.751
	24. 귀하의 개인 생활에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0.010	0.064	0.011		0.151	0.880

모형	종속변수 노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지원 지지도	(상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3.447	0.213			16.201	0.000
	22. 귀하가 현재의 종교를 믿은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0.000	0.039	0.001		0.012	0.990
	23. 귀하는 요즘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예배, 교리공부, 봉사 등)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0.050	0.034	-0.107		-1.475	0.141
	6.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합니까?		0.059	0.025	0.152		2.375	0.018
	24. 귀하의 개인 생활에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0.109	0.054	0.148		2.030	0.043

개신교 내에서 노인의 혐오적 인식과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에 대해 ①신앙년수, ②정기모임참여정도, ③정치성향, ④종교의 중요도 측면에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 노인의 혐오적 인식은 신앙년수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속변수와 상수 간 ANOVA분석의 유의확률이 .258으로 집계되어 최종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지원 지지도는 신앙년수, 신앙모임 참여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종교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력이 적었고, 그보다는 정치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3. 결론 및 제언



개신교는 노인을 혐오하는가?

- 노인혐오에 대한 사회적 우려 가운데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못지 않게 긍정적 인식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사회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띄었다. 자본주의적 구조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부담과 책임 만큼이나 노인 세대와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배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노인혐오를 생산하거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 정신이 사랑과 환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개신교의 인식과 배려는 일반 시민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노인 문제에 관한 한 신앙년수, 신앙 모임의 참여도, 종교의 중요성 등과 같은 종교적 생활이 개신교인의 윤리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연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성찰할 부분이다.
-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교회는 세상과 다른 대안적 공동체로서 세대간 인식차이뿐만 아니라 노인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과 환대 그리고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목회 현장에서 건강하게 공론화해야 할 책무가 있다.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젊은 세대와 단절된 채 경제적 사회적 소외와 좌절 속에서 일상을 견뎌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인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기 위해 나아가서 세상 한 가운데서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교회 회복을 위해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소통의 길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 4.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김혜령 박사

(이화여대)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순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설문 문항 구성 및 요인분석 결과
3. 분석항목 별 조사 결과분석
 - 가.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 나.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는가?
 - 다. 성소수자 혐오는 종교생활과 관련 있는가?
 - 라. 성소수자 혐오는 신앙과 윤리의 내용과 관련 있는가?
4. 연구 결론 및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지이자 반동성애 운동의 중심지로 개신교 일부 극우단체들이 언론과 학계로부터 지목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특히 “혐오적 사고”가 개신교인들의 일반적 정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 분석 항목에 따라, 타종교집단들(불교, 천주교, 기타종교, 비종교)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후 개신교인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여러 세부 요인들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개신교인들의 성소수자 혐오의 실재를 이해함으로써,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기독교 인권 윤리 교육의 방향을 보다 세심하게 기획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설문 문항 구성 및 요인분석 결과



성소수자 인식에 대한 설문의 문항구성 (총 14개 문항)

1) 주변 사람 중에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가 있다	8) 성소수자의 공공기관 취업 및 학교 입학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9) 성소수자 축제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맞불시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3)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은 가족질서를 위협한다	10) 성소수자를 “더럽다”, “변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다
4) 동성애는 질병으로서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 바뀔 수 있다	11)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은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성소수자들이자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는 반대한다	12) “동성애 반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현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직접적 차별이 아니다
6) 지인이 내게 성소수자라고 밝혀도 그와의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13) 성소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7)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	14)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은 기본적 인권임을 의식하게 하는 교육이 학교나 시민사회에 필요하다

설문문항 분류를 위한 [설문 문항간 요인분석] 실시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14개 문항에 대한 KMO 검증 결과 .862가 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나 연구모형으로 적합함.
- 공통성 확인 결과, (11)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은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문항(.315)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4를 넘어서 모든 문항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문항 중 (11)번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함.

▶ **요인분석 결과 13개 문항(1개 문항 제외)이 총 3개의 요인으로 묶임.**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문항분류를 위해 사용한 “혐오” 여부 판단 기준

- 1)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일 경우 :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타자의 존재보다 우선하여 두는가?
- 2) 사회적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착시킬 할 경우 :
존재는 인정하더라도 공적 존재로서 권리인정을 제한하는가?
- 3) 소수자의 인권보다 주류사회의 질서 안정을 우선하는 경우 :
기존의 전통적 사회 질서에 이질적인 것이라고 차별하는가?
- 4) 혐오감과 혐오적 사고가 함께 작동하는 경우 :
더러움이나 역겨움 등 혐오 감정에 기반하여 차별이 정당화 되는가?

[참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표현을 “혐오”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에 따른 신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단은 “혐오”라는 개념을 “신앙의 신념”에 따른 판단이나 표현과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판단과 표현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종교의 가치판단 아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들이 존재하는 “공공사회에서 나(우리)와 타자의 존재를 상호인정하고 공존의 윤리를 수용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자유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다양한 구성원이 더불어 사는 공공사회라는 면에서 종교적 자유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 보다 앞설 수 없다. 만약 소수자의 인권을 부인하면서까지 특정 집단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한다면, 결국 그러한 종교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 공동체의 존재 기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추가로 언급하자면, “성소수자가 성서적인가 아닌가”, 혹은 “구원의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종교적, 신학적 연구의 장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성신학이, 민중신학이 여전히 그 논쟁과 연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것처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연구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본 연구단의 이번 연구과정에서는 벗어나 있음도 함께 밝힌다.

[요인 1]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비판

요인 1 문항 (총 6문항)	6개 문항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	의미에 따른 하위 분류	하위분류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
(6) 지인이 내게 성소수자라고 밝혀도 그와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7)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 (8) 성소수자의 공공기관 취업 및 학교 입학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0) 성소수자를 더럽다, 변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다	.770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4문항)	.667
(13) 성소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14)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은 기본적 인권임을 의식하게 하는 교육이 학교나 시민사회에 필요하다		성소수자 혐오 방지 정책 지지 (2문항)	.685

[요인 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요인 2 문항 (총 4문항)	Cronbach's α (신뢰도계수)	의미에 따른 문항 분류
(2)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역변수) (3)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은 가족질서를 위협한다 (역변수) (4) 동성애는 질병으로서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 (역변수) (5) 나는 성소수자들이 자기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는 반대한다 (역변수)	.801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요인 3]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

요인 3 문항 (총 2문항)	Cronbach's α (신뢰도계수)	의미에 따른 문항 분류
(9) 성소수자 축제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맞불시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역변수) (12) 동성애 반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표현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직접적 차별이 아니다 (역변수)	.783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

설문 결과 분석을 위한 문항분류



3. 분석항목별 조사결과 분석

타종교 집단과 비교할 때
가.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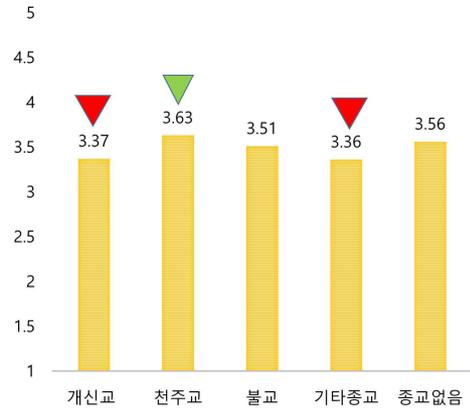
가-1) 종교별 [분류 1]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정도

분산 분석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9.454	4	2.363	4.405	.002
그룹 내	533.820	995	.537		
총계	543.273	999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인식
Duncan^{a,b}

종교종류	N	알파의 서브세트 = 0.1	
		1	2
기타종교	18	3.3611	
개신교	327	3.3670	
불교	139	3.5054	3.5054
종교 없음	424	3.5625	3.5625
천주교	92		3.6359
유의수준		.161	.349



분산분석(ANOVA) 결과, **종교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비판적 인식정도는 차이가 있었고, [유의확률 0.002**(p<.01)]

사후 분석(Duncan) 결과, **천주교에서 더 높은 점수로 기타종교와 개신교에서 더 낮은 점수로**

다른 종교들과 비판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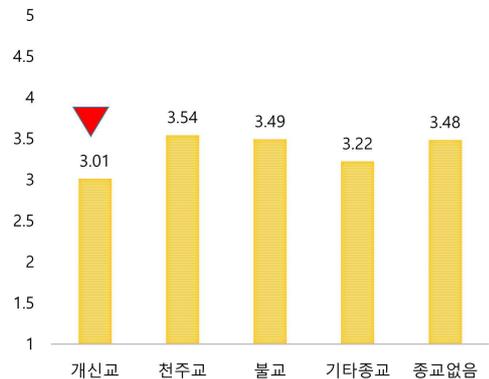
가-2) 종교별 [분류 2] 성소수자 혐오 방지 정책 지지 정도

분산 분석
성소수자 혐오 방지 정책 지지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49.691	4	12.423	16.144	.000
그룹 내	765.667	995	.770		
총계	815.358	999			

성소수자 혐오 방지 정책 지지
Duncan^{a,b}

종교종류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개신교	327	3.0168	
기타종교	18	3.2222	3.2222
종교 없음	424		3.4800
불교	139		3.4928
천주교	92		3.5435
유의수준		.188	.059



분산분석(ANOVA) 결과, **종교에 따라** 성소수자 혐오 방지 정책 지지 정도는 차이가 있었고, [유의확률 0.000***(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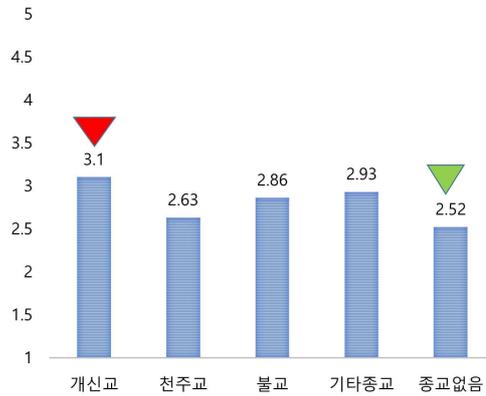
사후 분석(Duncan) 결과,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 보다 낮은 지지도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가-3) 종교별 [분류 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정도

분산 분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65.651	4	16.413	20.547	.000
그룹 내	794.783	995	.799		
총계	860.434	999			



Duncan^{a,b}

알파의 서브세트 = 0.05

종교종류	N	1	2	3
종교 없음	424	2.5153		
천주교	92	2.6304	2.6304	
불교	139		2.8579	2.8579
기타종교	18		2.9306	2.9306
개신교	327			3.0963
유의수준		.469	.074	.158

분산분석(ANOVA) 결과, **종교**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정도**는 차이가 있었고, [유의확률 0.000***($p < .000$)]

사후 분석(Duncan) 결과,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혐오적 사고정도가 가장 높았고**, **무종교(종교없음)**인 경우가 혐오적 사고 정도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가-4) 종교별 [분류 4]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 정도

분산 분석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8.668	4	2.167	3.076	.016
그룹 내	701.088	995	.705		
총계	709.756	999			



Duncan^{a,b}

알파의 서브세트 = 0.15

종교종류	N	1	2
천주교	92	3.0489	
종교 없음	424	3.0932	3.0932
불교	139	3.1367	3.1367
개신교	327	3.2859	3.2859
기타종교	18		3.3056
유의수준		.150	.199

분산분석(ANOVA) 결과, **종교**에 따라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 정도는 차이가 있었고, [유의확률 0.016**($p < .05$)]

사후 분석(Duncan) 결과, **천주교**에서 가장 낮은 점수, **기타종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무교, 불교, 개신교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과분석 1]

타종교 집단과 비교할 때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개신교는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있어서 타종교집단에 비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연장선 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정도도 타종교 집단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 특이점 하나, 같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천주교는 개신교의 수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립적인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추후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왜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남겨둔다. 특히 동성애 결혼과 동성간 성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천주교인들의 성소수자 인식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종교집단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지에 상호 관련성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특이점 둘, 4분류 모두에서 기술 통계상,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모든 종교집단들에 비교하여 가장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취한 집단은 종교가 없는 집단(무종교)이다.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있어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보다, 종교의 유무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종교 일반이 성 윤리와 관련하여 공유하고 있는 보수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3. 분석항목별 조사결과 분석

연령, 성, 학력, 소득, 정치성향

나.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는가?

* 이후의 연구 모두는 [분류 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나-1) 종교의 종류와 연령대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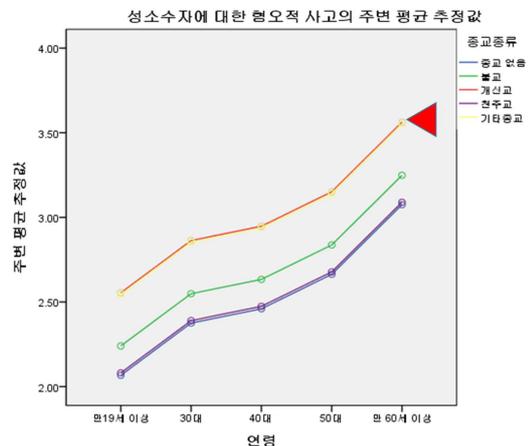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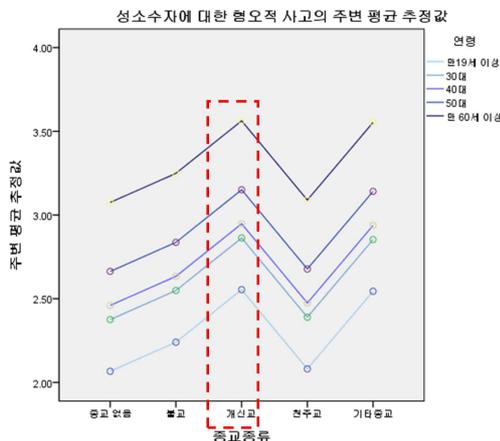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된 모형	182.132 ^a	8	22.766	33.262	.000
절편	2389.148	1	2389.148	3490.548	.000
종교	47.389	4	11.847	17.309	.000
연령대	116.481	4	29.120	42.545	.000
오류	678.302	991	.684		
총계	8538.875	1000			
수정 합계	860.434	999			

a. R 제곱 = .212 (조정된 R 제곱 = .205)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연령대 모두 성소수자 혐오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와 연령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종교종류	연령	평균	표준 편차	N
종교 없음	만19세 이상	2.0049	.86389	103
	30대	2.4658	.89976	73
	40대	2.4156	.93771	77
	50대	2.5941	.65916	85
	만 60세 이상	3.1802	.74127	86
불교	만19세 이상	2.3250	.90562	10
	30대	2.4038	.74679	13
	40대	2.6638	.90946	29
	50대	2.6964	.63906	42
	만 60세 이상	3.3833	.61607	45
개신교	만19세 이상	2.5745	1.03066	47
	30대	2.8788	.91593	66
	40대	3.0336	.95435	67
	50대	3.3605	.84039	43
	만 60세 이상	3.4014	.77226	104
천주교	만19세 이상	2.3500	.69921	10
	30대	2.0000	.48734	11
	40대	2.2738	.77421	21
	50대	2.7768	.72117	28
	만 60세 이상	3.2273	.52275	22
기타종교	만19세 이상	3.1667	.80364	3
	30대	2.6429	1.02933	7
	40대	3.1875	1.24791	4
	50대	3.1250	.88388	2
	만 60세 이상	2.8750	.88388	2
총계	만19세 이상	2.2182	.93914	173
	30대	2.5985	.90744	170
	40대	2.6616	.96894	198
	50대	2.8112	.76163	200
	만 60세 이상	3.3060	.72186	259
		2.7710	.92806	1000

나-1) 종교의 종류와 연령대에 따른 비교



개신교 혹은 기타종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나-2) 종교의 종류와 성별에 따른 비교

개체-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87.688 ^a	9	9.743	12.482	0.000
절편	2393.867	1	2393.867	3066.892	0.000
종교	69.852	4	17.463	22.373	0.000
성별	1.700	1	1.700	2.178	0.140
종교*성별	14.265	4	3.566	4.569	0.001
오차	772.746	990	0.781		
전체	8538.875	1000			
수정된 합계	860.434	999			

a. R 제곱 = .102 (수정된 R 제곱 =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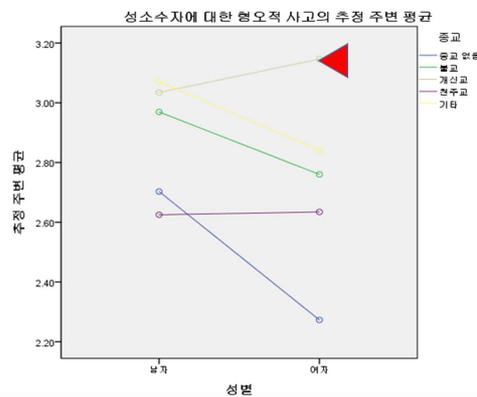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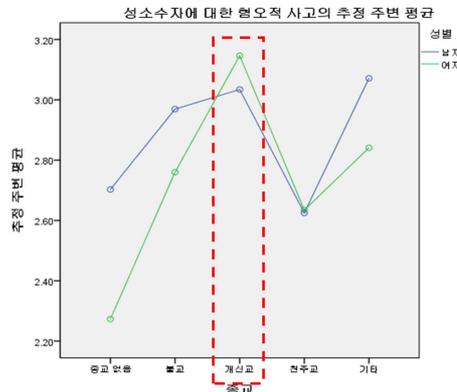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는 성소수자 혐오 사고에 유의하나,
성별은 유의확률 0.14(p).05)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종교와 성별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났다. (유의확률 0.001)**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종교유무	평균	표준편차	N	
종교 없음	1 남자	2.7029	0.85019	239
	2 여자	2.2730	0.93094	185
	전체	2.5153	0.91064	424
불교	1 남자	2.9692	0.74281	65
	2 여자	2.7601	0.85951	74
	전체	2.8579	0.81096	139
개신교	1 남자	3.0342	0.96071	146
	2 여자	3.1464	0.90866	181
	전체	3.0963	0.93248	327
천주교	1 남자	2.6250	0.71835	40
	2 여자	2.6346	0.82465	52
	전체	2.6304	0.77608	92
유교	1 남자	3.0714	1.09653	7
	2 여자	2.8409	0.86799	11
	전체	2.9306	0.93858	18
전체	1 남자	2.8340	0.87736	497
	2 여자	2.7087	0.97244	503
	전체	2.7710	0.92806	1000

나-2) 종교의 종류와 성별에 따른 비교



불교와 무교, 기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으나,
개신교는 타집단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혐오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여성 모두 대개 다른 집단보다 혐오적 사고가 높다.

나-3) 종교의 종류와 학력 수준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공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한 모형	129.843 ^a	8	16.230	22.015	.000
절편	2192.877	1	2192.877	2974.497	.000
종교	56.438	4	14.109	19.139	.000
학력수준	64.192	4	16.048	21.768	.000
오류	730.591	991	.737		
총계	8538.875	1000			
수정 합계	860.434	999			

a. R 제곱 = .151 (조정된 R 제곱 =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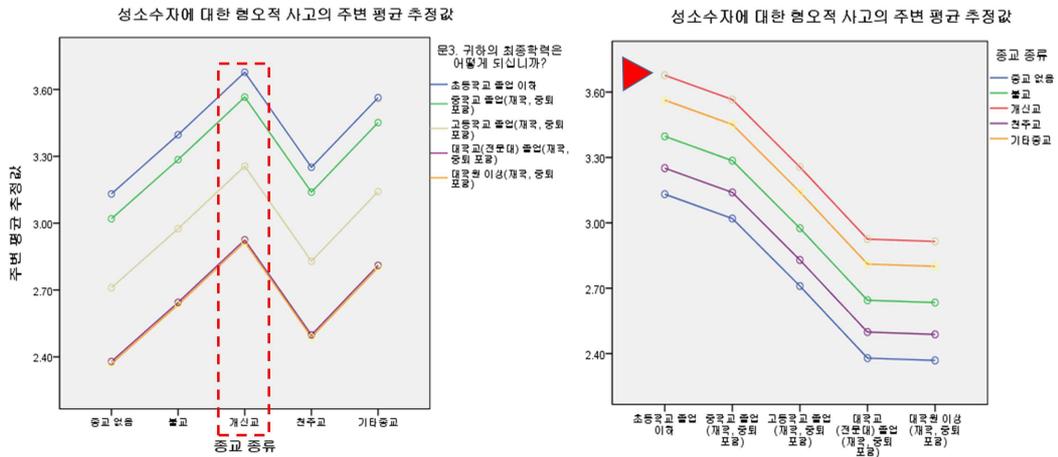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학력수준 모두 성소수자 혐오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와 학력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기술통계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종교 유무	평균	표준 편차	N		
종교 없음	초등학교 졸업 이하	3.3929	.47350	28	
	중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4559	.65691	17	
	고등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2.6139	.96060	70	
	대학교(전문대) 졸업(제학, 중위 포함)	2.3477	.85716	266	
	대학원 이상(제학, 중위 포함)	2.4044	.88552	34	
	총계	2.5153	.91064	424	
	불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298	.82821	21
중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4318	.33710	11	
고등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2.8333	.61522	21	
대학교(전문대) 졸업(제학, 중위 포함)		2.6336	.77737	73	
대학원 이상(제학, 중위 포함)		2.7500	.94097	13	
총계		2.8579	.81096	139	
개신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038	.72828	26
	중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1562	.66868	24	
	고등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3500	.89355	65	
	대학교(전문대) 졸업(제학, 중위 포함)	2.9841	.89083	169	
	대학원 이상(제학, 중위 포함)	2.8953	.93100	43	
	총계	3.0963	.93248	327	
	천주교	초등학교 졸업 이하	3.3500	.51841	5
중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3000	.64711	5	
고등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0838	.85112	16	
대학교(전문대) 졸업(제학, 중위 포함)		2.4481	.69400	53	
대학원 이상(제학, 중위 포함)		2.2692	.86278	13	
총계		2.6304	.77608	92	
기타종교		초등학교 졸업 이하	2.8750	.88888	2
	고등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2500	1.41421	2	
	대학교(전문대) 졸업(제학, 중위 포함)	2.8269	.96493	13	
	대학원 이상(제학, 중위 포함)	3.7500	.	1	
	총계	2.9306	.93858	18	
	총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3.3902	.60489	82
		중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3.3114	.62192	57
고등학교 졸업(제학, 중위 포함)		2.9495	.95170	183	
대학교(전문대) 졸업(제학, 중위 포함)		2.5845	.91639	574	
대학원 이상(제학, 중위 포함)		2.6466	.93321	104	
총계		2.7710	.92806	1000	

나-3) 종교의 종류와 학력 수준에 따른 비교



개신교 혹은 기타종교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높게 나타났다.

나-4) 종교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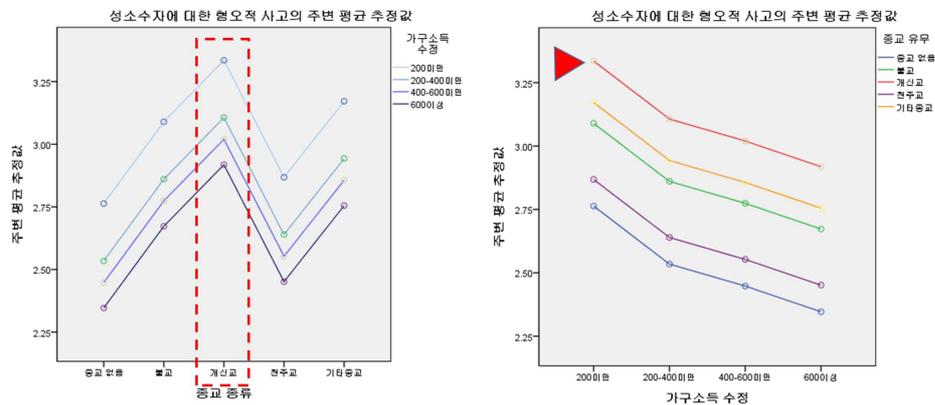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한 모형	85.151 ^a	7	12.164	15.565	.000
절편	2450.929	1	2450.929	3136.043	.000
종교	63.446	4	15.862	20.295	.000
가정소득수준	19.499	3	6.500	8.317	.000
오류	775.283	992	.782		
총계	8538.875	1000			
수정 합계	860.434	999			

a. R 제곱 = .099 (조정된 R 제곱 = .093)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소득 수준 모두 성소수자 혐오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나-4) 종교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른 비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개신교가 혐오적 사고의 정도가 높지만, 개신교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혐오적 사고 정도가 줄어든다.

나-5) 종교의 종류와 정치성향에 따른 비교

오브젝트 간 효과 검증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수정한 모형	136.491 ^a	6	22.749	31.203	.000
절편	2522.701	1	2522.701	3460.276	.000
종교	55.929	4	13.982	19.179	.000
정치성향	70.840	2	35.420	48.584	.000
오류	723.943	993	.729		
총계	8538.875	1000			
수정 합계	860.434	999			

a. R 제곱 = .159 (조정된 R 제곱 = .154)

이원 분산분석 결과, 종교와 정치 성향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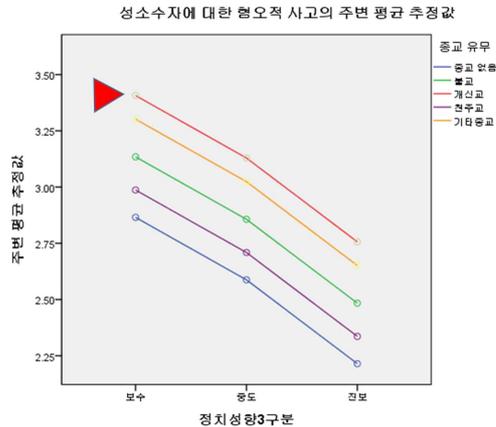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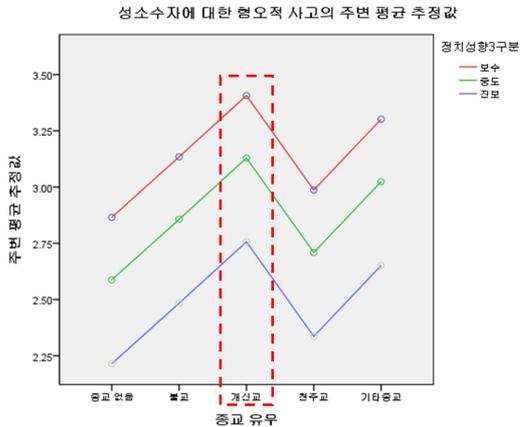
종교와 연령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기술통계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종교 유무	정치성향3구분	평균	표준 편차	N
종교 없음(무종교)	보수	2.9773	.92092	110
	중도	2.5167	.79410	150
	진보	2.2043	.87582	164
	총계	2.5153	.91064	424
불교	보수	3.1557	.68505	53
	중도	2.9309	.83683	47
	진보	2.3654	.72058	39
	총계	2.8579	.81096	139
개신교	보수	3.2987	.88632	113
	중도	3.2153	.83892	101
	진보	2.7876	.98324	113
	총계	3.0963	.93248	327
천주교	보수	2.9310	.76735	29
	중도	2.6818	.62289	22
	진보	2.3902	.79264	41
	총계	2.6304	.77608	92
기타종교	보수	3.5000	.00000	2
	중도	2.9250	.84204	10
	진보	2.7500	1.24499	6
	총계	2.9306	.93858	18
총계	보수	3.1254	.86423	307
	중도	2.8129	.85722	330
	진보	2.4332	.92475	363
	총계	2.7710	.92806	1000

나-5) 종교의 종류와 정치성향에 따른 비교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높았고, 개신교일 때가 타 종교들보다 혐오적 사고가 더 높았다.

[결과분석 2]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는가?

전체 응답자 집단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함께 증가하였고, 학력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감소하였다. 정치성향은 보수에 가까울수록 혐오적 사고가 증가하였다. 개신교 역시 전체 응답자 집단과 같은 성향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혐오적 사고의 정도가 전체 집단이나 타종교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기술 통계의 혐오적 사고의 평균 점수에 있어서, [결과분석 1]과 비슷하게 모든 수치에서 천주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겠다.

요약하자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연령, 학력, 소득, 정치성향의 사회적 요인에 상당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신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학력 수준에서, 모든 소득 대에서, 모든 정치 성향에서 평균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집단 중의 최상위의 위치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특이점 하나, 개신교는 다른 집단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혐오적 사고가 더 높다.
- 특이점 둘, 성소수자 혐오의 생산자이자 확산자로 개신교 극우집단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제로 볼 때, 본 설문 결과 개신교 내의 성소수자 혐오는 단순히 극우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내 정치적 보수와 중도, 진보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특이점 셋, 혐오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집단감정인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사회 계층적으로 차별에 더 취약한 계층(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에게서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받는 차별의 경험이 또 다른 차별의 경험과 공감과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분석항목별 조사결과 분석

종교모임참여, 도덕의 영향력, 복음을 배운 곳, 목회자 신뢰도 등

다. 성소수자 혐오는 종교생활과 관련 있는가?

다-1) 종교 모임 참여 정도와 혐오 상관관계 (전체 종교인 대상)

문23. 귀하는 요즘 절, 교회, 성당 등에서 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예배, 교리공부, 봉사 등)에 얼마나 자주 가입
니까? (5점 척도)

		상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질문2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Pearson 상관계수 유의수준(양쪽) N		1 1000	.288** .000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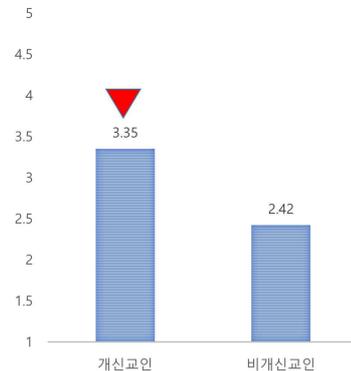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종교 모임 참여 정도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 모임에 참여정도가 높아질수록 혐오적 사고도 높아진다.**

다-1) 종교 모임 참여 정도와 혐오 상관관계 (개신교인 / 비개신교 종교인)

		그룹 통계				
		개신교 더미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 참여 정도	비(非) 개신교		249	2.42	1.216	.077
	개신교		327	3.35	1.348	.075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차이의 95% 하한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 참여 정도	등분산을 가정함	11.195	.001	-8.553	574	.000	-.930	.109	-1.14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8.673	557.780	.000	-.930	.107	-1.141



개신교/비개신교 집단간 종교 모임 참여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신교 집단이 비개신교 집단보다 종교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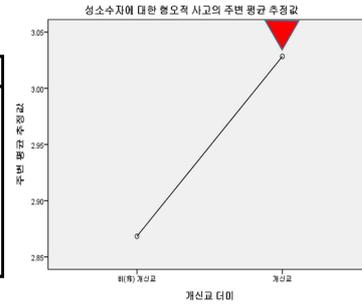
다-1) 종교 모임 참여 정도와 혐오 상관관계 (개신교인 / 비개신교 종교인)

오브젝트 간 효과 검정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부분 에타 제곱
수정한 모형	41.621 ^a	2	20.811	28.397	.000	.090
절편	574.061	1	574.061	783.332	.000	.578
Q23	27.397	1	27.397	37.384	.000	.061
개신교 여부	3.212	1	3.212	4.382	.037	.008
오류	419.920	573	.733			
총계	5505.500	576				
수정 합계	461.541	575				

a. R 제곱 = .090 (조정된 R 제곱 = .087)



모형에 표시되는 계수들은 다음 값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문23, 귀하는 오류, 교회, 성당 등에서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임(예해, 교리공부, 봉사 등)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시나요? = 2.95

공분산분석(ANCOVA)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종교 모임에 참여 정도를 보정하였을 때도, 개신교인인지 아닌지 유무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다르다. 즉, 비슷한 수준의 종교 모임참여정도를 가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중 개신교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더 높을 확률이 크다.

다-2) 종교 도덕의 사회적 영향력의 필요성과 혐오 상관관계 (전체 종교인 대상)

문28.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우리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역코딩, 5점 척도)

상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역코딩)	문28.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역코딩)	Pearson 상관계수	1	.311**
	유의수준(양쪽)		.000
	N	1000	576

** . 상관미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자가 믿는 종교의 도덕 가르침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사고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문화제도에 영향을 많이 미쳐야 한다 대답한 사람일수록 혐오적 사고는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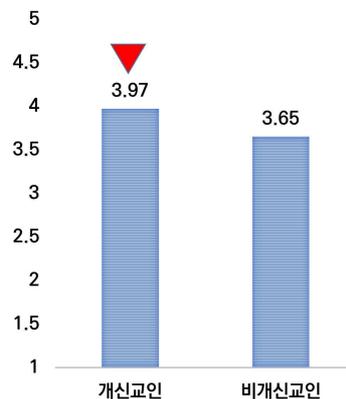
다-2) 종교 도덕의 사회적 영향력의 필요성과 혐오 상관관계 (개신교인 / 비개신교 종교인)

그룹 통계

		개신교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역변환문항) 문항28	비(非) 개신교	249	3.6546	.87136	.05522	
	개신교	327	3.9725	.94439	.05223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역변환 문항28	등분산을 가정함	1.782	.182	-4.137	574	.000	-.31786	.07684	-.46878	-.1669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182	553.307	.000	-.31786	.07600	-.46715	-.16690



독립표본 t test 결과, 개신교 집단과 비개신교 집단 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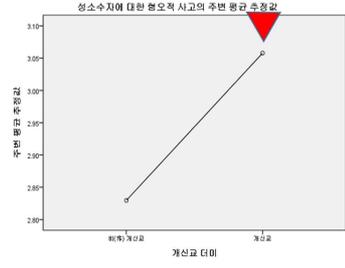
즉,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본인의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이 사회 문화와 제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더 높게 응답했다.

다-2) 종교 도덕의 사회적 영향력의 필요성과 혐오 상관관계 (개신교인 / 비개신교 종교인)

오브젝트 간 효과 검증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소스	유형 III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부분 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51.775 ^a	2	25.887	36.200	.000	.112
절편	108.850	1	108.850	152.212	.000	.210
RQ28	37.550	1	37.550	52.509	.000	.084
개신교 여부	7.150	1	7.150	9.998	.002	.017
오류	409.767	573	.715			
총계	5505.500	576				
수정 합계	461.541	575				



a. R 제곱 = .112 (조정된 R 제곱 = .109)

모형에 표시되는 공변량의 다른 값을 사용해서 결과를 봅니다. (계산된) 통계 귀하는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치만이 우리 사회의 문명나 정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855)

공분산분석(ANCOVA)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자기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정하였을 때도, 개신교자 아닌지 유무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다르다. 즉, **비슷한 수준으로 종교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중 개신교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더 높을 확률이 크다.**

다-3) 기독교 복음을 주로 배운 곳과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문27.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로 어디서 배웠는가? (1개 선택)

순위	응답 항목	N(인원)	[분류 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1	종교의식(예배)	121	3.3099
2	성경	69	2.9674
3	성직자	58	3.1207
4	가족	40	2.7625
5	개인적 명상이나 기도	17	2.6176
6	성경 이외의 종교서적	12	3.4583
7	기타	7	3.0000
8	지인	3	2.9167
	전체	327	3.0963

} [기타]

빈도가 적은 항목 5(개인적 명상이나 기도) ~ 항목 8(지인) 까지를 [기타]로 새로 정의하여 기독교인들 중에서 ANOVA 분석 시행

다-3) 기독교 복음을 주로 배운 곳과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분산 분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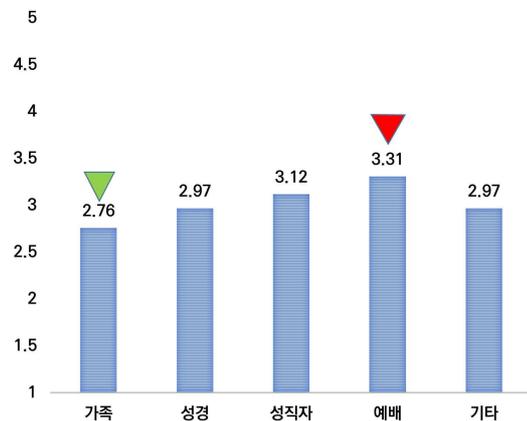
그룹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그룹 사이	11.802	4	2.951	3.497	.008
그룹 내	271.664	322	.844		
총계	283.466	326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Duncan^{a,b}

문제28. 상위5개	N	알파의 서브세트 = 0.05	
		1	2
가족	40	2.7625	
성경	69	2.9674	2.9674
기타	39	2.9679	2.9679
성직자	58	3.1207	3.1207
종교의식(예배)	121		3.3099
유의수준		.061	.074

동일 서브세트에 있는 그룹의 평균이 표시됩니다.



사후분석(Duncan) 결과, **기독교 복음을 예배에서 배웠다고 대답한 개신교인들이 가족이라고 응답한 개신교인들보다 성소수자 혐오적 사고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카톨릭 집단은 분산분석(ANOVA)에서 집단간 유의확률 0.99(p).05)임. 카톨릭 집단의 경우 종교적 가르침을 배운 곳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간의 상관관계 없음.

다-4) 목회자 설교 신뢰도와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문20-3. 귀하는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가 예수님의 복음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코딩, 5점 척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역리코드) 문20-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Pearson 상관계수	1	.275**
	유의수준(양쪽)		.000
	N	327	327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목회자 설교에 대한 신뢰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즉, **목회자 설교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의 정도도 같이 높아진다.**

다-5) 혐오 설교 여부에 따른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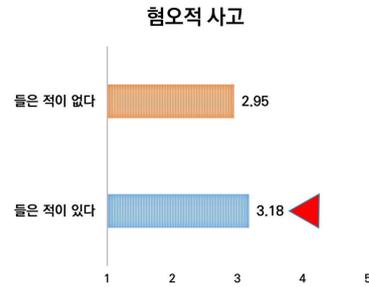
문20-4. 귀하는 최근 교회의 설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1)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 죄다

집단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예	206	3.1796	0.92223	0.06425
2 아니오	121	2.9545	0.93653	0.08514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동분산을 가정함	0.332	0.565	2.119	325	0.035	0.22507
동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110	248.449	0.036	0.22507

[유의확률 0.035 *p<.05]



개신교 응답자 327명 중 63%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 죄다”라는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고, 독립표본 t test 결과, 들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5) 혐오 설교 여부에 따른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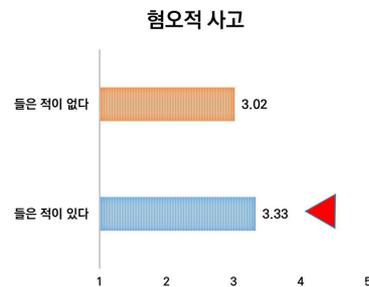
문20-4. 귀하는 최근 교회의 설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2) 제주도 난민은 이슬람교도여서 위험하다

집단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예	83	3.3283	0.88683	0.09734
2 아니오	244	3.0174	0.93621	0.05993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동분산을 가정함	1.269	0.261	2.648	325	0.008	0.31090
동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720	148.743	0.007	0.31090

[유의확률 0.008**p<.01]



개신교 응답자 327명 중 약 27%가 “제주도 난민은 이슬람교도여서 위험하다”라는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고, 독립표본 t test 결과, 들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5) 혐오 설교 여부에 따른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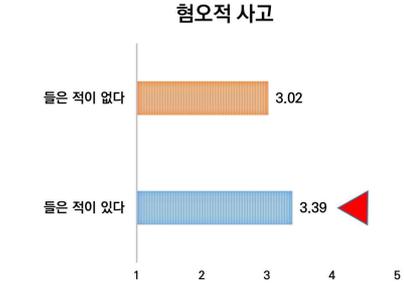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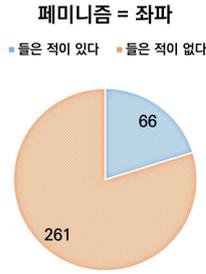
문20-4. 귀하는 최근 교회의 설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3) 페미니즘은 교회를 위협하는 좌파 사상이다

집단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예	66	3.3939	0.82981	0.10214
2 아니오	261	3.0211	0.94337	0.05839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등분산을 가정함	2.507	0.114	2.936	325	0.004	0.3728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169	111.453	0.002	0.37287

[유의확률 0.004**p<.01]



개신교 응답자 327명 중 약 20%가 “페미니즘은 교회를 위협하는 좌파 사상이다”라는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고, 독립표본 t test 결과, 들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5) 혐오 설교 여부에 따른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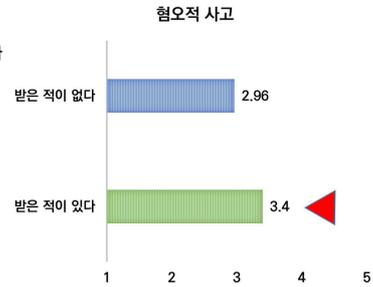
문20-5 귀하는 최근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카톡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까?

(1)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 죄다

집단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예	103	3.3956	0.82138	0.08093
2 아니오	224	2.9587	0.94982	0.06346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등분산을 가정함	3.292	0.071	4.027	325	0.00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248	226.780	0.000

[유의확률 0.000***p<.001]



개신교 응답자 327명 중 약 31%가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한 죄다”라는 메시지를 SNS나 온라인에서 전달 받은 경험이 있고, 독립표본 t test 결과, 전달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5) 혐오 설교 여부에 따른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문20-5 귀하는 최근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카톡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까?

(2) 제주도 난민은 이슬람교도여서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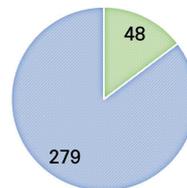
집단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예	48	3.2656	0.89681	0.12944
2 아니오	279	3.0672	0.93696	0.05609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등분산을 가정함	0.968	0.326	1.364	325	0.17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406	65.917	0.164

[유의확률 0.174 p>.05]

“제주도 난민=이슬람” 메시지

■ 받은 적이 있다 ■ 받은 적이 없다



개신교 응답자 327명 중 약 15%가 “제주도 난민은 이슬람교도여서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전달 받았고, 들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기술통계상 평균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독립표본 t test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5) 혐오 설교 여부에 따른 혐오의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문20-5 귀하는 최근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카톡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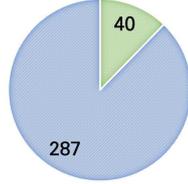
(3) 페미니즘은 교회를 위협하는 좌파 사상이다

집단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1 예	40	3.4625	0.81365	0.12865
2 아니오	287	3.0453	0.93782	0.05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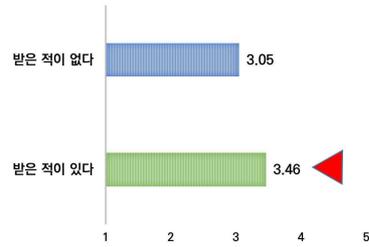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동분산을 가정함	1.377	0.241	2.676	325	0.008
동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979	54.524	0.004

[유의확률 0.000***p<.001]

페미니즘 = 좌파
 ■ 받은 적이 있다 ■ 받은 적이 없다



혐오적 사고



개신교 응답자 327명 중 약 12%가 “페미니즘은 교회를 위협하는 좌파 사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전달받았다. 독립표본 t test 결과, 전달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분석 3] 성소수자 혐오는 종교생활과 관련 있는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종교생활 면에서 개신교인 집단과 비개신교 종교인 집단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종교 모임의 참석 정도와 자기 종교의 도덕의 사회적 영향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모두에서 개신교가 비개신교 종교인 집단보다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개신교 종교인들에 비해 개신교인들은 종교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열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에 비개신교인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끼치며, 비례 상승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이점 하나, 개신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도 증가하고, 설교의 내용에서 동성애, 이슬람 난민, 페미니즘에 대한 차별 메시지를 접한 성도일수록 혐오적 사고도 동반 상승한다. 특히, 개신교 응답자 중 차별 메시지를 접한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면에서(동성애 63%, 이슬람 난민 27%, 페미니즘 20%), 목회자의 설교가 한국 개신교에서 혐오적 풍토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특이점 둘, 개신교 집단이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배운 경로가 기술통계상 예배(성경)성직자)가족 순이며, 이 중에서 '예배'와 '성직자'라고 답한 집단에서 혐오적 사고의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후 분석 결과, '예배'라고 답한 집단의 혐오적 사고가 가장 높았다는 점을 앞서 언급한 [특이점 하나]와 함께 고려할 때, 개신교 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풍토를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데에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로 탄생한 개신교 신앙의 특성상 한국 개신교인들이 중요한 종교적 가르침을 성경이 아니라 예배로 대담한 점은 한국교회가 '예전의 종교'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점을 남긴다.
- 특이점 셋, 이번 설문에서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막연히 추측해 온 온라인과 SNS 상의 혐오 메시지 유포에 대해 통계상으로 유효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신교 응답자의 31%가 동성애, 15%가 이슬람 난민, 12%가 페미니즘에 관한 차별 메시지를 SNS나 온라인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중 동성애와 페미니즘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일수록 통계상 유의미하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동성애 개신교 운동집단에서 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개신교인들 일부에게 전달되고 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가짜 뉴스와 정보에 기대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학문적 객관성과 공공의 윤리성에 기초한 검증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분석항목별 조사결과 분석

내세관, 인류애, 가족, 평화·공존·연대, 덕·경제·사회·젠더·생명윤리
 라. 성소수자 혐오는 신앙과 윤리의 내용과 관련 있는가?

라-1) 종교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선택

[문26] “귀하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응답자)

	사례수 (명)	내세관	인류애 (이웃사랑/자비/자 선 등)	가족생활 (효/결혼/자 녀)	생명 존중	근면/ 성실	평화/공 존/연대	복(福)/ 풍요/ 성공	사회적 정의	성도덕	애국심 (민족, 나 라 사랑)
전체 (종교인)	(576)	26.7	22.4	20.0	9.7	5.9	5.0	4.5	1.7	1.0	0.9
종교 유형											
불교	(139)	15.8	18.7	28.1	12.2	5.0	3.6	12.2	1.4	2.2	0.7
개신교	(327)	36.7	21.4	16.8	8.0	5.5	4.0	1.8	0.6	0.9	0.9
천주교	(92)	9.8	33.7	18.5	12.0	6.5	9.8	3.3	6.5	0.0	0.0
유교	(2)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기타 종교	(16)	18.8	12.5	18.8	12.5	12.5	12.5	0.0	0.0	0.0	6.3

이탤릭체 숫자는 % 임.

라-2) “내세관”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혐오 정도 (개신교인 대상)

문26. 귀하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개 항목 중, 1&2 순위 선택)

	내세관	집단통계량						
		DU.Q26_1 내세관(복수 응답 더미 변수 처리)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종교인	26.7%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그렇다	144	3.1319	0.95252		
			아니다	183	3.0683	0.91806		
불교	15.8%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개신교	36.7%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0.906	0.342	0.612	325	0.541	0.06364
천주교	9.8%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동분산을 가정함		0.609	301.775	0.543	0.06364
			동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유의확률 0.54 (p).05)

기술통계상, 327명의 개신교인들 응답자 중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무려 36.7%가 “내세관”을 선택하였다.(1위)
 이는 전체 평균 26.7%보다 10%가 높으며,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천주교의 9.8% 보다 약 26%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독립표본 t test 검정결과, “내세관”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3) “인류애(이웃사랑, 자비, 자선)”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혐오 정도 (개신교인 대상)

문26. 귀하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개 항목 중, 1&2 순위 선택)

	인류애 (이웃사랑/ 자비/자선 등)	집단통계량							
		DU.Q26_5 인류애(복수 응답 더미 변수 처리)	N	평균					
전체 종교인	22.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선택	168	2.9940				
			비선택	159	3.2044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개신교	21.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등분산을 가정함	2.099	0.148	-2.049	325	0.041	-0.2103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044	318.663	0.042	-0.21035

유의확률 0.041*(p<.05)

기술통계상, 327명의 개신교인들 응답자 중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21.4%가 “인류애”를 선택하였다.(2위) 이는 전체 평균 22.4%보다 1% 낮은 수치이며, 천주교의 33.7% 보다 약 22%가 낮은 수치이다.(천주교는 인류애가 1위)

또한 독립표본 t test 검정결과, “인류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하게 낮으며, 인류애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혐오적 사고가 낮게 나타났다.

라-4) “가족생활(효, 결혼, 자녀)”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혐오 정도 (개신교인 대상)

문26. 귀하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개 항목 중, 1&2 순위 선택)

	가족생활 (효/결혼/ 자녀)	집단통계량							
		DU.Q26_2 가족 생활(효, 결혼, 자녀)(복수 응답 더미 변수 처리)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종교인	20.0%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선택	105	3.2595	0.88315			
			비선택	222	3.0191	0.94709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개신교	16.8%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등분산을 가정함	0.327	0.568	2.189	325	0.029	0.2403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245	217.610	0.026	0.24038

유의확률 0.029*(p<.05)

기술통계상, 327명의 개신교인들 응답자 중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16.8%가 “가족생활”을 선택하였다.(3위) 이는 전체 평균 약 3% 낮은 수치이다.

또한 독립표본 t test 검정결과, “가족생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을 중요한 가치로 볼수록 혐오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라-5) “평화·공존·연대”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혐오 정도 (개신교인 대상)

문26. 귀하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개 항목 중, 1&2 순위 선택)

	평화/공존/ 연대	집단통계량							
		DU.Q26_9 평화, 공존, 연대(복수 응답 더미 변수 처리)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종교인	5.0%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선택	36	2.8194	0.94795			
			비선택	291	3.1306	0.92646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이		
개신교	4.0%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등분산을 가정함	0.578	0.448	-1.896	325	0.059	-0.3111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862	43.687	0.069	-0.31114

유의확률 0.59 (p>.05)

기술통계상, 327명의 개신교인들 응답자 중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4%가 “평화·공존·연대”를 선택하였다.(6위) 이는 천주교의 9.8% 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독립표본 t test 검정결과, “평화·공존·연대”에 믿음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화, 공존, 연대의 상대로 성소수자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라-6) 세부 윤리와 성소수자 혐오 상관관계 (개신교인 대상)

ANOVA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67.589	6	11.265	16.698	.000 ^b
	잔차	215.876	320	0.675		
	전체	283.466	326			

a. 종속변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b. 예측자: (상수), 경제-자유주의 윤리, 젠더 윤리, 개인 덕윤리, 경제-상생 윤리, 환경 생명 윤리, 사회 윤리

계수 ^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030	0.445		4.561	0.000
	개인 덕윤리	0.900	0.115	0.531	7.801	0.000
	사회 윤리	-0.682	0.132	-0.390	-5.178	0.000
	젠더 윤리	-0.311	0.093	-0.204	-3.332	0.001
	환경 생명 윤리	0.323	0.115	0.187	2.809	0.005
	경제-상생 윤리	-0.063	0.106	-0.038	-0.594	0.553
	경제-자유주의 윤리	0.144	0.055	0.134	2.602	0.010

a. 종속변수: KLGBT3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

세부 윤리 항목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와의 상관관계
개인 덕윤리	덕윤리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도 상당히 높음.
사회 윤리	사회윤리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낮음.
젠더 윤리	젠더윤리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도 낮음.
환경생명윤리	환경생명윤리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높음.
경제-상생윤리	상관없음.
경제-자유주의 윤리	환경생명윤리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높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는 개인 덕윤리, 환경생명윤리, 경제-자유주의 윤리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특히 개인 덕윤리에 가장 강한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윤리와 젠더윤리가 높을수록 혐오적 사고가 낮다. 또한 경제-상생윤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결과분석 4]
 성소수자 혐오는 신앙과 윤리의 내용과 관련 있는가?

개신교 응답자 중에 가장 중요한 종교 가르침으로 '인류애'라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혐오적 사고가 낮았으며, '가족 생활(효, 결혼, 자녀)'라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혐오적 사고가 높았다. 이는 이웃사랑을 신앙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다 쉽게 지닐 수 있는 반면, 가족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 하는 사람일수록 이성애 결혼 제도에 기초하는 가족제도에서 벗어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닌다는 추측을 확인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가 세부 윤리에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하였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단순히 하찮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도덕적인 판단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본 연구단에 정의한 혐오 개념에서 '도덕이 된 혐오'라고 설명한 부분을 통계상 유의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 특이점 하나, '인류애(이웃사랑)'의 경우와 달리, '평화·공존·연대'를 개신교 가르침 중 최우선으로 꼽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혐오적 사고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화·공존·연대'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삶의 정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평화와 공존의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쉽게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 특이점 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개신교인의 36.7%가 내세관(1위)을, 21.4%가 인류애(2위)를 꼽았다. 천주교인들이 인류애를 1위로(33.7%), 내세관을 9.8%(4위)로 꼽은 것과 비교할 때 한국 개신교인들의 다수가 신앙의 핵심을 사후의 천국구원 신앙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내세관을 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사고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인류애를 1위로 꼽은 천주교와 비교하여, 사후 천국구원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의 신앙이 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과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에 덜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4. 연구의 결론 및 기독교윤리학적 과제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가. 연구의 결론

- 개신교인은 본 연구가 검증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 타종교인, 비종교인에 비해 **성소수자 혐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신교인들의 성소수자 혐오는 **개신교 신앙에 대한 열정과 확신, 교회 생활에 대한 충실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한국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성소수자 혐오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 전체 응답자들에게서 성소수자 혐오는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수 집단이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진보 집단보다 혐오가 강하다. 이러한 성향은 개신교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개신교 진보집단의 경우 마저 다른 집단들의 진보집단에 비해서도 성소수자 혐오가 높다.**
- 개신교 일부의 **반동성애 운동에 상당히 많은 개신교인들이 노출되었으며**, 노출된 개신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개신교인들에 비해 성소수자 혐오가 크다.
-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하여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차이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 **성소수자 혐오는 단순히 미움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정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나. 연구의 한계

-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하여 개신교인들의 입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서문자주의(성소무오설, 근본주의)에 대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지 않아**, 혐오와 신앙관의 중요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을 고려하며 개신교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신교인을 실제 인구 대비보다 오버 샘플링(Oversampling, 1000명 중 327명)** 하였으나, 문항에 따라 세부 항목 응답자가 여전히 30명 이하(통계학상 최소 유효 표본)로 내려가기도 하여 분석할 수 없는 항목이 아쉽게도 존재하였다.
- 표본의 크기가 1,000명이라는 한계상 타종교, 특히 개신교와 여러 면에서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표본이 92명에 불과하여 세부 항목 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이 일부 있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 성소수자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설문에 추가 되었어야 했다. 또한 **극우 개신교 집단의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 설문에 추가 되었더라면**, 극우 개신교가 성소수자 혐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이웃사랑'에 대한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었으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웃'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이 없어**,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실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다.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

- 1) '혐오' 개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소수자 문제**에 대해 개신교인들이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 윤리교육의 대중적 커리큘럼**이 시급히 새로 마련해야 한다.
- 2)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세속 공동체가 **기독교왕국(Christendom)의 절대적 통치가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인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이러한 **세속 세계 안에서 상호 인정과 공존의 윤리가 필요함**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적 자유보다 **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권리가 우선함을 이해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이 기독교 윤리교육 안에 보다 더 세밀하고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다.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

- 3)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특히 예수가 공생애 기간 동안 동행한 ‘이웃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법과 도덕법에서 철저하게 차별 받고 혐오 받았던 소수자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풍부한 성서 연구와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4) 본 연구의 결과, 한국 개신교는 예배와 목회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에 저항하며 신앙인 개개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Protestantism 본연의 의미를 한국 개신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새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가 독점한 교권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개신교인 하나하나가 신앙의 윤리적 양심과 자유에 근거하여 신앙적 윤리의 원칙들을 스스로 세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신도 신학교육을 조속히 확산해야 한다.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다.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

- 5) 혐오 문화는 지배질서의 안정과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된다. 이에 기독교 윤리학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나아가 예수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지배 질서와 기득권에 저항하며 약자와 소수자를 환대하는 혁명적인 사랑의 윤리를 몸소 보여주셨음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약자와 소수자를 환대하는 방식이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교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출발하는 무조건적 환대였음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 6)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인 불변의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정치 제도,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해석되어 왔음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 윤리학의 학문적 작업을 도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신교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가?

다. 기독교 윤리학적 과제

- 7) 신실한 신앙이 성서무오설이나 근본주의, 성서문자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동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편적 합리성과 윤리성에 기초한 신앙인의 모범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교인들에게는 개신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돕고, 세속 사회에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8)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형태가 존중 받는 현대사회에서는 확신에 찬 종교적·도덕적 판단이 타인에게 폭력(윤리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아, 늘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독교 윤리교육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 MEMO

■ MEMO

■ MEMO

■ 연구진 소개

김혜령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 학사·석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개신교학부 신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적/공적 책임을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저서로는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공저, 그린비, 2017.), 『남겨진 자들의 신학』(공저, 2015)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노숙인 복지사업을 위한 국가와 한국교회의 책임과 협력”, 이본 게바라의 라틴 아메리카 여성해방신학과 생태여성신학 연구, “폴 리콴르의 ‘선물경제’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폴 리콴르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 개념 연구”, “Me too의 시대 : 성폭력의 범죄성과 기독교 성 윤리의 새 기준” 등이 있다.

성신형 박사

송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게릿신학교 박사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조교수

폴 틸리히와 임마누엘 레비나스를 비롯한 현대 철학과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타자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난민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역서로 폴 틸리히의 『사랑, 힘 그리고 정의』(2017, 한들출판사), 저서로는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2018, 한들출판사) 등이 있고, 발표한 논문으로는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포스트휴먼 시대의 정의론 : 레비나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 윤리적 제언: 예멘 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국문학 학사, 기독교학 석사·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기독교학과 강사

젠더적 관점에서 성서, 여성, 기억을 중심으로 ‘인문학적으로 성서 읽기’를 연구하는 데에 주된 학문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한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신학적 가치가 폄하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기민하게 세속화되는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교회를 넘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혐오와 여성신학』(공저, 동연, 2018), 『하나님의 형상, 우리 여성』(공저, YWCA, 2018), 『성폭력, 성경, 교회』(공저, CLC, 2019), 『혐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공저, IVP, 2019)가 있으며, 2018년 5월에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Journey Together: Toward Inclusive and Affirming Ministry”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Recognition of Same-Sex Orientations and Present Conditions of Sexuality i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은아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여성학과 석사·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젠더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 그리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가 제도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주의 증가와 새로운 시민과 가족, 그리고 이주여성의 행위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또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어떻게 배우고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페다고지와 공감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공동저서로는 『여성학』(미래 m&b, 2007), 『국가와 젠더』(한울, 2010)가 있고, 논문으로는 “행정관료조직과 성 주류화의 정치”, “대학생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공감교육 연구”, “성 주류화와 성평등 사회구조로의 ‘전환가능성’”, “글로벌 하향훈”으로서 결혼이주의 정치학”,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등이 있다.

이봉석 박사

감리교신학대학 신학 학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개신교학부 신학 학사·석사·박사

감리교신학대학 강사, 신길중앙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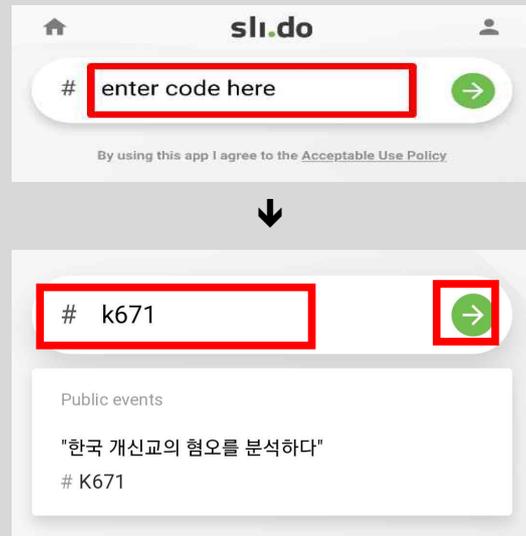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은 뒤 드러난 인간이해의 원시성, 사회적 연대의 해체 그리고 국가 역할의 실종을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 라세르의 『기독교인과 폭력』(늘봄, 2017)을 번역하였으며, 연구논문으로는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시대 노동신학의 필요성 연구”, “기독교 윤리학에서 본 신자유주의 인간이해와 사회 통합의 가능성 연구: 하이에크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다시 보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기독교 평화주의” 등이 있다. 2019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신교인의 의식조사를 통해 알아 본 혐오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질문은 이렇게 해주세요! - 어렵지 않습니다!^^

1.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주소 입력란에 **sli.do** 를 입력하고 접속해주세요.



2. sli.do에 접속한 다음 코드 입력란에 **k671** 를 입력해주세요.(하단에 자동으로 뜨는 public event를 클릭하세요. 우측 화살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3. 이곳에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4. 나와 유사한 질문을 한 분이 있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수가 많은 질문을 우선 전달합니다.



